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

일상재구성법으로 본  
망원동 노인의 공간이용과 정서경험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가족학전공  
홍 영 의

일상재구성법으로 본  
망원동 노인의 공간이용과 정서경험

지도교수 한 경 혜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가족학전공  
홍 영 의

홍영의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8월

위 원 장      이 재 립      (인)

부위원장      진 미 정      (인)

위      원      한 경 혜      (인)

## 국문초록

본 연구는 Aging in Place 및 사회적 통합과 관련하여, 도시노인의 지역사회 내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도시노인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지역사회 내 공간을 살펴보고, 그 공간에서 머무른 시간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공간들이 도시노인의 사회적 관계 및 삶의 질과 관련하여 어떠한 맥락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망원동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일상재구성법 조사와 GPS 데이터 수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망원동 노인들의 활동반경을 알아보고, 그들이 머무르는 공간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만남 및 활동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공간에서 머무른 시간의 Z-score가 정서의 Z-score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각 공간에서 머무른 시간의 개인 내 변동이 정서의 개인 내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망원동 노인들의 평균 활동반경은 1.9km로 나타났으며, 이는 행정동(洞)의 반경과 유사한 수치였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활동반경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 이를 통해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일상생활에서 동네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인들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경로당, 복지관/주민센터, 종교시설, 오픈스페이스, 시장/대형상점, 패스트푸드점/빵집, 이웃의 집/일터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망원동 노인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평균 17시간 15분이었다. 그리고 집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쁨, 행복, 감사를 느끼는 정도가 낮아지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정도는 높아졌다. 특히, 집에서 오래 머무르는 것의 부정적 효과는 1인가구의 노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Aging in Place와 관련하여 집에서 거주하는 것만으로는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없으며,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때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경로당은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반면, 복지관과 주민센터에서 보낸 시간은 기쁨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경로당에서는 주로 TV 시청, 고스톱 치기와 같은 정적인 여가가 이루어지는 반면 복지관에서는 스포츠, 학습활동과 같은 적극적 여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두 공간에서의 정서경험이 달라지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로 보였다.

넷째, 종교시설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가능케 하면서, 노인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망원동 노인들은 종교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종교모임과 노인대학, 노래교실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이웃들과 교류하고 있었다. 그리고 종교시설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정도가 높아지고, 화남을 느끼는 정도가 낮아졌다.

다섯째, 망원동의 공원, 시장 옆 공터와 같은 오픈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도시의 열린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교류의 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 및 대형상점에서 노인들이 교류하거나 산책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오픈스페이스와 시장 및 대형상점에서 머무는 시간은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오픈스페이스와 시장 및 대형상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단순운동이나 생필품 구입이 주를 이루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섯째, 패스트푸드점이나 빵집 안의 카페에서 노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점과 빵집에서 보낸 시간이 길었던 날에 행복을 느낀 정도가 높고, 외로움을 느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웃의 집이나 일터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대인맥락이 카페와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활동과 대인맥락 뿐만 아니라 공간의 특성 또한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공간을 이용하는 양상이 연령과 젠더에 따라 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기노인은 전기노인에 비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복지관/주민센터, 시장/대형 상점,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남성노인은 여성노인에 비해 경로당과 오픈스페이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본 연구는 도시노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 노인의 지역사회 내 삶을 구체적으로 조망하고, 나아가 공간이용과 정서경험 간의 연관성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의 Aging in Place와 사회적 통합 그리고 삶의 질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내 공간이 가지는 중요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지역사회(neighborhood), 일상재구성법(day reconstruction method), 도시노인(urban older adults), 공간이용(use of space), 정서경험(emotional experience)

**학 번 :** 2017-24860

# 목 차

|   |    |
|---|----|
| 제 1 장 연구의 필요성 .....                           | 1  |
|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                           | 6  |
| 제 1 절 Aging in Place와 지역사회 내 통합 .....         | 6  |
| 제 2 절 노년기 일상생활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 .....              | 8  |
| 제 3 절 노년기 일상생활 공간 연구방법 .....                  | 11 |
| 제 4 절 노년기 일상생활 속 공간이용과 정서경험 .....             | 15 |
| 제 3 장 연구방법 .....                              | 18 |
| 제 1 절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                       | 18 |
| 제 2 절 변수의 측정 및 분석방법 .....                     | 20 |
| 제 4 장 연구결과 .....                              | 26 |
| 제 1 절 GPS 데이터로 살펴본 노인의 활동반경 .....             | 26 |
| 제 2 절 일상재구성법으로 살펴본 노인의 일상생활<br>공간과 정서경험 ..... | 28 |
| 제 5 장 결론 및 논의 .....                           | 51 |
| 참고문헌 .....                                    | 59 |
| 부록 .....                                      | 71 |
| Abstract .....                                | 76 |

## 표 목 차

|           |   |    |
|-----------|---|----|
| [표 III-1] | 개별 정서의 응답분포와 평균 및 표준편차 .....                  | 24 |
| [표 IV-1]  | 각 공간에 대한 방문자비율, 방문한 날짜, 머무는 시간 ....           | 28 |
| [표 IV-2]  | 집에서 머무는 시간: 연령집단별·성별 비교 .....                 | 30 |
| [표 IV-3]  | 각 공간별 방문자 비율: 연령집단별·성별비교 .....                | 30 |
| [표 IV-4]  | 집: 시간대별 방문자 비율, 대인맥락, 활동, 정서 .....            | 32 |
| [표 IV-5]  | 가구형태별 집에서의 대인맥락 비교 .....                      | 34 |
| [표 IV-6]  | 경로당: 시간대별 방문자 비율, 대인맥락, 활동, 정서 .....          | 37 |
| [표 IV-7]  | 복지관/주민센터: 시간대별 방문자 비율, 대인맥락, 활동,<br>정서 .....  | 39 |
| [표 IV-8]  | 종교시설: 시간대별 방문자 비율, 대인맥락, 활동, 정서 ....          | 41 |
| [표 IV-9]  | 오픈스페이스: 시간대별 방문자 비율, 대인맥락, 활동,<br>정서 .....    | 44 |
| [표 IV-10] | 시장/대형상점: 시간대별 방문자 비율, 대인맥락, 활동,<br>정서 .....   | 46 |
| [표 IV-11] | 패스트푸드점/빵집: 시간대별 방문자 비율, 대인맥락,<br>활동, 정서 ..... | 48 |
| [표 IV-12] | 이웃의 집/일터 시간대별 방문자 비율, 대인맥락, 활동,<br>정서 .....   | 50 |

## 그 립 목 차

|            |  |    |
|------------|--|----|
| <그림 III-1> | 데이터 구조 .....   | 20 |
| <그림 IV-1>  | 망원동 노인들의 GPS 데이터 분포 양상 .....                             | 27 |
| <그림 IV-2>  | 망원동 노인들의 주요 일상생활 공간 .....                                | 29 |
| <그림 IV-3>  |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의 z-score와 소외감의 z-score<br>: 가족구조의 조절효과 ..... | 34 |



## I.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Aging in Place 및 사회적 통합과 관련하여, 도시노인의 지역사회 내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사회적 통합이 매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실현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도시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만남의 장으로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도시노인들이 일상을 보내는 지역사회 내 공간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했다. 나아가 어떤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지에 따라 경험하는 정서가 달라지는지 탐색해보고자 했다.

일상생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일상생활의 누적이 전반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한경혜, 최희진, 2018; Bastian, Kuppens, De Roover, & Diener, 2014; Blanchard-Fields, Horhota, & Mienaltowski, 2008). 특히 노년기는 여러 사회적 역할로부터 벗어나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Krantz-kent & Stewart, 2007).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휴식·소비·가족생활을 노동시간 이후로 배열해야 하는 등 요구되는 일상생활의 시간표가 있지만, 은퇴 후에는 일상을 구성하는 것의 상당 부분이 노인 개인의 자율에 맡겨지기 때문이다(김왕배, 2000).

자유롭게 꾸려나갈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는 만큼, 노년기 일상생활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것은 노년기 삶의 질에 있어 차이를 불러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때 한국 사회와 관련하여 지적되는 바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바람직한 노년기 삶에 대한 사회문화적 각본이 마련되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것이 노인 개인의 몫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다(한경혜, 손정연, 2009). 이는 현재 노인들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일상생활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삶의 질에 있어 긍정적인지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상을 구성하는 요소를 시간, 공간, 활동, 함께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 봤을 때, 대부분의 연구들은 활동이나 함께 있는 사람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최희진, 한경혜, 2018; Birditt, Manalel, Sommers, Luong, & Fingerman, 2018; Fingerman, Huo, Charles, & Umberson, 2019). 한편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제껏 사회과학분야에서 공간이라는 주제는 ‘사회학의 공간 망각(Schroer, 2006)’이라 할 정도로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 이는 공간을 일상생활의 물리적 배경, 지리적 좌표 정도로 여기는 시각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공간에 머무르는가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단순히 물리적인 배경으로 바라보기는 어렵다(한경혜, 윤성은, 2009).

공간은 단순히 행위의 배경으로 존재하기보단 사회적 관계를 매개하는 장으로서 존재하며, 때로는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규정하기도 한다. 예컨대 Wagner(1972)는 장소, 사람, 시간, 행위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통일체를 이룬다고 보았으며, Soja(1989)는 공간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변증법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공간에 의해 규정되기도 한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Relph(1976)는 장소와 정체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장소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기도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바탕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어떤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가는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 및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정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공간에 초점을 맞춰 일상생활을 살펴보거나, 정서와의 연관성을 탐색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 노년기 일상생활의 공간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려는 정책들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이나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노인이 시설에 입소하기보단 자신이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Aging in Place 패러다임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로 노인의 독립주거를 지원하는 주택을 고안하거나, 재가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권현주, 이수진, 이연숙, 2008; 석재은, 이기주, 2017).

한편, Aging in Place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지역사회가 노인의 사회적 통합을 가능케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국내의 정책들 또한 지역사회 내 통합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사회중심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로당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종묘·탑골공원의 문화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으며,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주민들의 안부 확인, 정서적 지지 등을 통해 ‘이웃케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흔히 노인들의 공간이라고 여겨지는 곳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이웃 간의 유대 및 연대는 꾸준한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Oswald, Jopp, Rott, & Wahl, 2010). 이러한 정책의 제한점은 노인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관한 연구의 부족,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웃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정책에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연구 중 지역사회를 단위로 노인의 일상생활과 생활공간을 살펴본 연구는 몇 편에 불과하다(우국희, 2017; 윤성은, 한경혜, 2011; 한경혜, 김주현, 강혜원, 2005). 이 중에서도 특히 도시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인가구의 비율이 높고, 지역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에 반해 도시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편의상 연구대상을 도시에서 표집한 경우에 머무르고, 도시노인들의 생활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도시화로 인해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도시노인을 대

상으로 한 일상생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노인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파악하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노인의 지역사회 내 통합을 가능케 하는 공간들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각 공간에서 머문 시간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노인의 공간이용과 삶의 질 간의 연관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 망원동이라는 한 동네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하고, 일상재구성법을 통해 망원동 노인들이 하루 동안 이용하는 공간과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 했던 활동, 그날의 정서 등을 살펴보았다. 이에 더해 망원동 노인들의 GPS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들이 활동하는 공간의 위치 좌표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노인의 일상생활 공간과 정서경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띠고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WHO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은 “노인이 접근 가능한 곳에” 사회참여를 가능케 하는 공간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인들이 생활하는 환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서구에서는 GPS 데이터를 사용하여 노인의 활동반경(activity space)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Hirsch, Winters, Clarke, & McKay, 2014; Schönfelder & Axhausen, 2003), 국내에서는 아직 그러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망원동 노인들의 GPS 데이터를 분석하여 활동반경을 살펴보고자 했다.

둘째, 일주일간의 일상재구성법 조사를 통해 노인들이 방문하는 공간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각 공간을 방문하는 노인의 비율, 각 공간에 방문한 날짜, 머무르는 시간 등을 살펴보고,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만남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머무르는 공간을 폭넓게 탐색하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각 공간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연령과 젠더에 따라 이용하는 공간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Soja(1989)는 사회적 분화는 곧 공간적 분화로 연계된다고 보았는

데, 노인이 이용하는 공간과 관련해선 이에 대한 탐색이 부족했다. 이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탑골공원 등 일부 공간에 한정되어 연구가 이루어져 온 것과 관련 있으며, 이러한 연구경향은 노인 집단 내 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보여준다(한경혜, 손정연,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 집단 내 다양성에 주목하여 공간을 이용하는 양상이 연령과 젠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각 공간에서 머문 시간이 노인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어떤 공간에서 머무르는가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무엇을 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정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각 공간이 가진 특유의 분위기 또한 정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공간이용과 정서 경험 간의 연관성을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망원동 노인들의 활동반경은 어떤 크기로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망원동 노인들의 일상생활 속 상호작용은 어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가?

**연구문제 3.** 연령과 젠더에 따라 망원동 노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4.** 망원동 노인들은 각 공간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활동을 하는가?

**연구문제 5.** 각 공간을 이용하는 시간은 망원동 노인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Aging in Place와 지역사회 내 통합

Aging in Place란 시설에 입소하기보단 자신이 살아온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한경혜, 최혜경, 안정신, 김주현, 2019).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나이 들어갈 것인가?’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노인들은 시설에 입소하기보단 자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하며 나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승훈, 2017; Rantz et al., 2011; Wiles, Leibing, Guberman, Reeve, & Allen, 2011). 2015년 국민연금연구원이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주거형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비율은 3.6%에 불과했다(이윤경, 강은나, 김세진, 변재관, 2017). 또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인권보장적 측면에서, Aging in Place는 대부분의 국가가 노인복지정책의 지향점으로 채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 Aging in Place 패러다임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사회 의 힘으로 노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나라를 구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케어안심주택, 주거환경개선, 재가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2025년까지 케어 제공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과 더불어 Aging in Place 구현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생활할 수 있는 주택환경을 고안하는 주거학 분야의 연구나(권현주 외, 2008; 김영주, 2006; 이수진, 권현주, 이연숙, 민병아, 2007; Bayer & Harper, 2000), 노인의 지역사회 내 거주 의사, 재가서비스 이용 관련 요인, 시설 입소와 관련 요인을 분석한 사회

복지학 분야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석재은, 이기주, 2017; 이재모, 이신영, 2006; 정여주, 서문진희, 2011; Jorgensen, Arksey, Parsons, Senior, & Thomas, 2009; Luppa, Luck, Weyerer, König, Brähler, & Riedel-Heller, 2009).

위와 같은 정책적 움직임과 선행연구들은 노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최근의 연구들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것만으로 노인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Barrett, Hale, & Gauld, 2012; Oswald et al., 2010).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지만,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살아가는 노인들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은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독립성과 프라이버시를 보장 받고 익숙한 생활방식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가족·친구가 사망하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했다(조아라, 2013; Löfqvist et al., 2013; Sixsmith & Sixsmith, 2008).

이러한 연구결과는 Aging in Place의 실현과 관련하여 거주와 독립성과 삶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노인들에게 Aging in Place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은 이웃과의 유대를 느끼고, 지역사회로부터 “온기와 활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꼽았다(Wiles et al., 2011). 그리고 자신이 지역사회에 속해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집에 있다(being at home)”고 느낀다고 응답하기도 했다(Peace, Holland, & Kellaher, 2006). 이처럼 지역사회 내에 통합되어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Thomas와 Blanchard(2009)는 Aging in Community라는 용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Aging in Place의 “Place”가 의미하는 바는 노인이 살아온 집에서 그를 둘러싼 지역사회로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노후를 어디에서 지낼 것인가”뿐만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함께 늙어갈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우국희, 2017; Bookman, 2008).

## 2. 노년기 일상생활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

지역사회는 노인이 살아가는 생활터전으로서, 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가장 직접적인 환경이다(한경혜 외, 2005). 앞선 절에서 살펴본 논의들은 Aging in Place 패러다임이 지향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선, 지역사회가 노인의 사회적 통합을 가능케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학교나 직장에 다니지 않는 노인의 일상은 근린 공간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인의 사회적 관계와 삶의 질에 있어 지역사회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욱 높을 것이다(강은나, 2017; Inagami, Cohen, & Finch, 2007; Sugiyama & Thompson, 2007).

하지만 지역사회가 어떠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가를 논의하기에 앞서, 노인의 지역사회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Gardner(2011)의 지적처럼 Aging in Place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역설적으로 Places of Aging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이는 ‘노인은 어느 공간에서 일상을 보내는가?’, ‘그 곳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는가?’, ‘그 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에 대한 탐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여 노인의 사회적 관계와 삶의 질을 연관 지어 살펴본 국내 연구는 한경혜(윤성은, 한경혜, 2011; 한경혜 외, 2005)의 연구와 우국희(2017)의 연구 정도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한경혜는 강원도 지역의 마을 세 곳(한경혜 외, 2005)과 전라북도 순천군의 마을 두 곳(윤성은, 한경혜, 2011)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고, 농촌이라는 공간적·사회적 맥락 안에서 노인들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인정, 마을회관, 커다란 나무 밑의 모정과 같은 물리적 공간이 주민들 간의 만남을 매개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마을의 공간적 특성과 상호작용 양상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노인들이 가기 어려운 위치에 모정이 있거나, 노인들이 오르내리기에 불편한 2층에 노인정이 있는 등 노인들이 모일만한 공간이 적절히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는 노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우국희(2017)는 섬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중요한 장소는 어디이며, 그 장소를 어떻게 경험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섬지역 노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아니면 경로당에서 보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 경로당은 이웃과 교류하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사회적 관계의 유지를 가능케 하는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사회 내 공간이 노인의 사회적 관계의 장으로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여 도시노인의 일상을 살펴본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도시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 윤성은과 한경혜(2009)의 지적처럼 편의상 조사대상을 도시에서 표집한 연구에 그치고, “노인으로서 도시에서 살아가기”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도시는 농촌이나 섬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공간으로 지역사회 내 노인들의 일상이나 상호작용 양상 또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Phillipson & Scharf, 2005). 우선 도시노인들은 생산활동의 중단을 경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며 지속적으로 일하는 농촌노인에 비해 여가시간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이정화, 한경혜, 2003; 한경혜, 손정연, 2009). 또한 도시공간과 관련하여 지적되는 바는 공간 자체가 철저히 상품화되어 있어 열린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조명래, 2013). 농촌에 비해 열린 공간이 부족한 만큼 도시노인들이 교류하는 공간 또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도시노인의 일상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도시노인들이 머무르는 공간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도시노인의 일상 공간을 연구한 경우를 살펴보면 경로당, 노인복지관, 종묘·탑골공원 등 일부 공간에 초점을 맞추어, 이용 양상이나 이용 관련 요인, 삶의 질과의 연관성 등을 살펴본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김소진, 2009; 김은경, 2017; 유성호, 2009; 이승희, 2017; 장세길 2006; 한성미, 2016). 즉, 대부분의 연구들은 흔히 ‘국가가 노인을 위해 마련한 공간’ 또는 ‘노인이 집결하는 공간’으로 여겨지는 공간에 초점을 두고 살펴

보고 있었다. 그렇다면이니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들로는 위와 같은 공간 외에 노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도시는 다양한 생애과정을 거쳐와서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취향을 가진 노인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다(Crystal & Shea, 1990). 이러한 노인 집단 내부의 이질성은 곧 공간을 이용하는 양상의 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Soja(1989)는 사회적 분화는 공간적 분화로 연계된다고 주장하며 공간과 계급의 상동관계(space-to-class homology)에 대해 논한 바 있다. 또한 Bourdieu는 사회적 공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면서, “경제적 차이든 문화적 차이든 그 차이를 경시한 채 아무나를 아무나와 한데 모아둘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Schroer, 2006). 현재 노인 집단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하였을 때, 노인들이 머무르는 공간 또한 경로당, 복지관, 탑골공원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는 일부 공간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 나아가,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여 도시노인의 일상을 조망하고, 그들이 머무르는 공간을 폭넓게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망원동이라는 하나의 동네를 단위로 하여 도시의 노인들이 일상을 보내는 공간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가 노인 집단 내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연령과 젠더에 따라 지역사회 내 공간을 이용하는 양상이 분화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령과 젠더는 생애과정에서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사회적 층위를 반영하는 중요한 맥락으로서(한경혜, 손정연, 2009), 공간의 이용 양상에서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연령이 비슷하고, 성별이 같은 사람과 교류하는 것은 서로 유사한 규범을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데에서 오는 심리적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이지연, 한경혜, 2017), 이것이 연령과 젠더에 따른 공간의 분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Noon과 Ayalon(2017)은 공공공간(public open spaces)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들의 상호작용 양상을 관찰한 결과, 비슷한 연령과 같은 성별의 노인들끼리 모여서 교류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공간을 점유하는 데에 요구되는 암묵적인 조건 또한 공

간의 분화를 야기할 수 있다. Bourdieu는 한 공간을 점유하기 위해선 그 공간에 상응하는 아비투스(習俗)를 갖춰야 하며, 그 암묵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엔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보았다(Schroer, 2010). 장세길(2006)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은 노인들이 복지관은 ‘젊은 사람들이 노는 곳’이라 인식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모습은 노인들이 공간 점유에 대한 암묵적인 조건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연령과 젠더에 따라 이용하는 공간이 분화될 가능성에 주목하여, 망원동 노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연령과 젠더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 3. 노년기 일상생활 공간 연구방법

선행연구들은 노년기의 일상생활과 공간적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해왔다. 문화기술지적 방법(윤성은, 한경혜, 2011; 한경혜 외, 2005; Wanka, 2017)에서부터, 심층인터뷰(우국희, 2017 외 다수), 참여관찰(Cattell, Dines, Gesler, & Curtis, 2008), 포토보이스(Mahmood, Chaudhury, Michael, Campo, Hay, & Sarte, 2012), 동행(go-along) 인터뷰(Gardner, 2011), GPS 분석(박효숙, 정연준, 이경환, 2017; Hand, Huot, Rudman, & Wijekoon, 2017), 경험표집법(한경혜, 손정연, 2009; Bouisson & Swendsen, 2003), 일상재구성법(Oerlemans, Bakker, & Veenhoven, 2011)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방법들이 사용되어 왔다. 이 중 경험표집법(ESM: Experience Sampling Method)과 일상재구성법(DRM: Day Reconstruction Method)은 일상생활의 외현을 구성하는 시간, 공간, 활동, 함께 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나아가 정서와의 관련성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 왔다.

일상재구성법이 개발되기 전에는 주로 Csikszentmihalyi와 동료들이 개발한 경험표집법을 이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한경혜, 손정연, 2009; Chui, Hoppmann, Gerstorff, Walker, & Luszcz, 2014; Larson,

Richards, & Perry-Jenkins, 1994). 경험표집법은 일상생활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고안된 연구방법으로, 하루에 여러 번 알람을 보내서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분은 어떤지 등을 응답하게 하는 방법이다 (Hektner, Schmidt, & Csikszentmihalyi, 2007). 이러한 경험표집법은 그 순간마다의 정서를 측정하기 때문에 일상의 맥락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한경혜와 손정연(2009)은 경험표집법을 사용하여 노인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살펴보고, 어느 공간에 있는지에 따라 경험하는 정서가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노인들의 전체 응답 중 집에 있었다는 응답은 57.5%, 직장에 있었다는 응답은 3.2%, 공공영역에 있었다는 응답은 39.3%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경험표집법은 알람이 울린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묻지 않기 때문에, 하루의 일상이 구성되는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즉, 전체 응답 중 집에 있었다는 응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알 수 있지만 정확히 몇 시간 동안 집에 머물렀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다.

경험표집법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Kahneman, Krueger, Schkade, Schwarz와 Stone(2004)은 시간일지법과 경험표집법을 결합한 일상재구성법을 개발하였다. 일상재구성법에서 연구참여자는 그날(또는 전날)에 경험한 에피소드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그 에피소드가 일어난 시간을 적는다. 그리고 경험표집법에서 하듯이 각각의 에피소드에서 했던 활동, 만난 사람, 느낀 감정 등을 기술한다. 일상재구성법은 경험표집법에 비해 구체적인 시간을 파악할 수 있어서 하루의 일상이 구성되는 양상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일상재구성법이 고안된 이후 여가·운동과 같은 활동에 들인 시간이나 가족·친구 등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최희진, 한경혜, 2018; 한경혜, 최희진, 2018; Cornwell, 2011; Genadek, Flood, & Moen, 2017; Whitehead & Blaxton, 2017). 하지만 공간적 맥락을 중심으로 하여 노인이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공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양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있더라도 공간을 집과 야외로 양분해서 살펴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일상생활의 공간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Cabrita, Lousberg, Tabak, Hermens, & Vollenbroek-Hutten, 2017; Kaspar, Oswald, Wahl, Voss, & Wettstein, 2015; Lay, Pauly, Graf, Mahmood, & Hoppmann, 2018). 지역사회가 노인의 사회적 통합을 가능케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최근의 논의들은, 선행연구에서 “야외”라고 분류해왔던 공간에 어떤 공간들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상재구성법을 통해 노인이 머무른 공간을 조사한 후, 이를 세부적으로 범주화하고자 한다.

또한 일상재구성법은 한 사람당 4~7일 간의 일상을 조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서와 시간량의 개인 간 차이(between-person difference)뿐만 아니라 개인 내 변동(within-person difference)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 개인 간 차이와 개인 내 변동 중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분석방법을 달리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긴 노인과 짧은 노인의 정서를 비교하는 것은 개인 간 차이에 초점을 둔 것이며, 이 경우 정서와 시간량은 원점수로 두고 분석하면 된다. 반면 집에서 있었던 시간이 긴 날과 짧은 날의 정서를 비교하는 것은 개인 내 변동에 초점을 둔 것인데, 개인마다 시간량과 정서가 변동하는 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 내 변동에 초점을 두고 있을 때는 시간량과 정서점수를 Z점수화하여 살펴볼 수 있다(한경혜, 손정연, 2009). 본 연구는 소규모 표본을 분석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각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과 정서의 관련성을 살펴봄에 있어 개인 간 차이보다는 개인 내 변동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자 했다.

한편, 노인 집단 내 스마트폰 보유율이 높아지면서 스마트폰을 통해 노인들의 GPS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박효숙 외, 2017; 이선재, 박소현, 2018; Cornwell & Cagney, 2017; Franke, Winters, McKay, Chaudhury, Sims-Gould, 2017). 이러한 연구들은

GPS 데이터를 분석하여 노인들의 보행속도, 보행량, 활동반경 등을 알아보거나, GPS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노인들의 이동경로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GPS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들의 활동반경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선행연구들은 지역사회의 지리적 범위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실질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래서 소속감이나 연대가 가능한 지리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 바 있다(진미정, 2018). 농촌의 경우 산등성이, 하천, 지대의 고도와 같은 자연적 환경으로 인해 마을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지만, 도시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윤성은, 한경혜, 2011; 한경혜 외, 2005).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편의상 도시의 지역사회 단위를 구(區)라는 행정단위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구본미, 2014; 김동배, 유병선, 2013; 최광수, 2016). 하지만 이는 노인의 생활권역에 대한 고려가 없이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서구의 학계에서는 GPS 데이터를 이용하여 노인의 활동반경(activity space)을 파악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Hirsch et al., 2014; Schönfelder & Axhausen, 2003). 노인의 활동반경을 살펴보는 것은 사회적 공간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성을 지닌다. WHO(2007)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인이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 사회참여가 가능한 공간 및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이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 필요한 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노인이 생활하는 반경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GPS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의 보행경로나 보행속도를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졌지만(박효숙 외, 2017; 이선재, 박소현, 2018; 허진아, 이선재, 박소현, 2019), 노인의 활동반경을 살펴본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GPS 데이터를 이용하여 노인의 활동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 4. 노년기 일상생활 속 공간이용과 정서경험

앞서 살펴보았듯이 경험표집법, 일상재구성법과 같은 연구방법이 등장하면서 노인의 일상생활과 정서경험을 연관 지어 살펴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의 삶을 바라보는 단위가 일상생활이라는 미시적인 단위로 내려오면서, 단기적(microscopic-time)이고 즉각적(immediate)인 수준에서 나타나는 삶의 질인 정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정서는 일반적으로 자극에 대한 대응으로서 나타나는 인지적 평가, 주관적 변화, 자율체계 및 신경세포의 각성, 행동충동성 등의 복합적인 반응의 연쇄로 정의된다(Plutchik, 1982).

이러한 노인의 일상과 정서에 주목하는 이유는 24시간을 단위로 반복되는(routined) 일상이 사소하고 당연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누적되어 전반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김왕배, 1999). 예컨대 부정정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심장질환의 진행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나(Sherwood & Turner, 1992), 사회적 교류를 통한 긍정정서의 경험이 노인의 인지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Blanchard-Fields et al., 2008)는 단기적인 정서 경험이 누적되어 전반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정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생활 요소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 중 대부분은 신체적·사회적·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경험하는 정서가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연구이거나(한경혜, 최희진, 2018; Everard, 1999; Klumb, 2004; Lawton, Moss, Winter, & Hoffmann, 2002; Whitehead & Blaxton, 2017), 혼자 있었던 시간 또는 가족·친구와 있었던 시간에 따라 경험하는 정서가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연구들이었다(한경혜, 손정연, 2009; Birditt et al., 2018; Chui et al., 2014; Larson, Mannell, & Zuzanek, 1986). 반면, 일상을 어떤 공간에서 보내는지에 따라 경험하는 정서가 달라지는지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노인의 공간이용과 정서경험 간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탐색한 연구

는 매우 부족하지만, 공간의 사회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공간이 정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지리학자이자 사회-공간 변증법의 권위자인 Soja(1989)는 공간의 사회적 함의를 강조하기 위해 공간성(Spatiality)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때 공간성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 구성된 공간의 상태 또는 성질을 의미한다(조명래, 2013). 이러한 Soja의 논의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는 어떤 공간에서 머무르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한경혜와 윤성은(2009)의 논의와 맞닿아 있다. 또한 Diaz Moore(2014)는 장소이론과 환경노년학의 연장선상에서 Ecological Framework of Place를 제안하였는데, 이 이론에서 논의되는 바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Diaz Moore(2014)는 특정 공간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이해를 프로그램이라고 일컬으며, 이것이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패턴을 형성하며 ‘공간의 규칙(place rules)’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공간은 그곳에서의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발생시키면서, 그 공간에 머무르는 사람의 정서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현재까지 공간이용과 정서경험의 연관성을 탐색한 소수의 연구를 살펴보면, 앞서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집에서의 정서와 야외에서의 정서를 비교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집에서 머무는 것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적이지 않게 나타났다. 집에 있는 순간의 정서나, 집에서 오래 있었던 날의 정서가 부정적이라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Cabrita et al., 2017; Petersen, Austin, Mattek, & Kaye, 2015),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도 정서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었다(Kaspar et al., 2015). 이처럼 선행연구의 결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한경혜와 손정연(2009)의 연구에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집, 직장, 공공영역에서 경험하는 정서가 젠더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집에 있을 때 부정정서를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선 남성노인에게 집은 공적영역으로부터 돌아와 쉴 수 있는 공간의 의미가 크다면, 여성노인에게 집은 일터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 연구는 같은 공간이



라 할지라도 노인이 처한 맥락에 따라 공간이 가지는 의미와 정서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본다면, 선행연구에서 집이라는 공간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적이지 않게 나타나는 것은 집의 의미가 달라지게 만드는 여러 맥락이 작용했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집의 의미가 달라지게 만드는 잠재적 요인 중 하나로서 가구형태에 주목하고자 한다. 가구형태는 집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로, 집의 의미가 달라지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인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가구형태에 따라 집의 의미가 달라지는지 탐색하는 것은 더욱 중요성을 지닐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에서 머문 시간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가구형태가 조절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교내 융복합 연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건축학과, 아동가족학과, 행정대학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노인의 근린 생활권 내 구매 행위 특성을 고려한 공간복지 및 동네가로 활성화 파일럿 연구 (연구책임자: 박소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1·2동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67명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수집된 자료이다.

연구대상지인 망원동은 인구구성, 지형,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망원동의 노인 인구 규모는 망원1동 3,249명, 망원2동 2,803명이며, 노인 인구 구성비는 망원1동 14.7%, 망원2동 14.3%이다. 망원동은 인접한 다른 동네에 비해 평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한강공원이 있다. 망원1동의 면적은 1.13km<sup>2</sup>, 망원2동의 면적은 0.67km<sup>2</sup>으로, 망원1동의 끝에서 망원2동의 끝까지 가는 데에는 걸어서 약 30분 정도 걸린다. 그리고 망원동은 대규모 아파트가 적고, 연립주택과 소규모 아파트가 많은 저층고밀지역이다. 동네의 중심부에는 망원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이 있으며, 망원시장 주변 골목길을 중심으로 음식점과 카페가 들어서면서 ‘망리단길’이라는 골목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여러 매스컴에 망원시장과 망리단길이 소개되면서, 망원동에 방문할 때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약 3주간 경로당,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종교시설, 망원동 내 가게 등을 방문하여 모집하거나,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노인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이때 GPS 데이터 수집을 위해 스마트폰을 보유한 노인에 한하여 연구참여자를 모집했다. 작은 동네 내에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보니, 기관에 공문을 보내 모집하는 방식으로는 최소 표본 수 이상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할 수 없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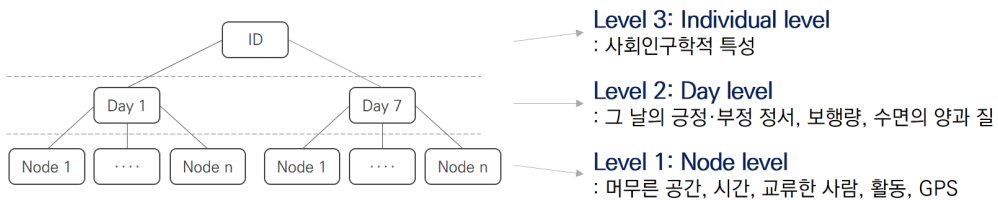
다. 따라서 8명의 연구원들이 3주간 망원동의 곳곳을 방문하여 연구참여자를 직접 모집하였다. 최종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 67명이 모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주일 동안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갔던 연구참여자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총 66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설문조사에 비해 작은 표본 수이지만, 한 명당 7일을 조사하여 관측치가  $462(=66 \times 7)$ 개가 되기 때문에 통계적 분석에 있어 무리가 없다(Kahneman et al., 2004). 연구대상자 66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평균 연령은 72.9세이며, 이 중 75세 미만 전기노인은 41명이고, 75세 이상 후기노인은 24명이다. 그리고 여성노인은 40명이며, 남성노인은 26명이다. 가구형태의 경우 57명의 노인은 가족동거가구이고, 7명의 노인은 노인1인가구이다. 그리고 43명은 배우자가 있었고, 23명은 사별 및 이혼 등으로 인해 배우자가 없었다. 학력의 경우 10명은 초졸 이하였고, 20명은 중졸이었고, 36명은 고졸 이상이었다.

자료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첫째, 일주일간의 전화조사를 통해 일상재구성법(day reconstruction method) 설문을 진행하였다. 매일 오후 6-9시 경에 조사원이 전화를 걸어 그날에 방문한 장소를 중심으로 에피소드를 재구성하고, 각 장소를 방문한 이유, 머무른 시간, 교류한 사람, 수행했던 활동 등을 질문하였다. 그리고 그 날에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어느 정도로 경험했는지와 가장 즐거웠던 활동이 무엇인지 등을 조사했다. 둘째, 일상재구성법 설문을 진행하는 일주일 동안 ㈜Swallaby가 개발한 WalkOn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노인의 GPS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WalkOn 어플리케이션은 20초 간격으로 위도·경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30초 이상 걸음 수 변동이 없는 경우 수집을 중단하기 때문에 보행량과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정태호, 2018). 셋째, 일주일간의 설문이 종료된 이후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하는 일반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상의 자료수집 과정은 서울대학교 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 2. 변수의 측정 및 분석방법

데이터는 아래 <그림 III-1>과 같이 위계적으로 한 명의 노인당 7일의 데이터가 내재되고, 하루 당 그날 방문한 장소들이 내재된 3수준 자료이다.



<그림 III-1> 데이터 구조

각 연구문제별로 변수의 측정과 분석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연구문제 1. 망원동 노인들의 활동반경은 어떤 크기로 나타나는가?

노인들의 활동반경은 WalkOn 어플리케이션으로 수집한 GPS 데이터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통행일지와 대조하여 GPS 데이터의 누락이 많은 노인들의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55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여행이나 친척의 집을 방문하느라 다른 도시로 간 날의 GPS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활동반경은 조재희와 서일정(2017)의 연구를 참조하여 계산하였다. 우선 각 노인별로 위도좌표( $Lat_i$ )와 경도좌표( $Lon_i$ )의 평균을 구하여 중심위치의 위도좌표( $Lat_c$ )와 경도좌표( $Lon_c$ )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개별 좌표가 중심위치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계산하여 활동반경을 측정하였다. 활동반경( $R_i$ )은 아래의 수식과 같이 하버사인 공식(Haversine formula)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아래의 수식에서  $r$ 은 지구 반경을 의미하며, 평균값인 6361.01km를

대입하였다.

$$R_i = 2r \arcsin\left(\sqrt{\sin^2\left(\frac{Lat_i - Lat_c}{2}\right) + \cos(Lat_c)\cos(Lat_i)\sin^2\left(\frac{Lon_i - Lon_c}{2}\right)}\right)$$

이후 각 노인별로 7일치의 활동반경의 평균을 내어 평균 활동반경을 측정하였다. 활동반경의 측정에는 STATA 14 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GPS 데이터의 시각화에는 QGI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연구문제 2. 망원동 노인들의 일상생활 속 상호작용은 어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가?

전화를 통한 일상재구성법 조사에서 “오늘 하루 동안 방문한 곳을 순서대로 말씀해주세요.”를 질문하여 노인들이 그 날 방문했던 장소들을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이 완료된 이후 망원동 노인들이 방문했던 공간을 범주화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 때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들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였다. 예컨대 통장정리를 위해 은행을 방문하거나,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방문했던 경우 은행과 병원은 기타로 분류하고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집, 경로당, 복지관/주민센터, 오픈스페이스, 시장/대형상점, 종교시설, 패스트푸드점/빵집, 이웃의 집/일터로 공간이 범주화되었다. 망원동 노인들이 각 공간을 이용하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자 비율, 방문한 날짜, 머무는 시간, 시간대별 방문자 비율을 살펴보았다. 이때 방문자 비율은 일주일 중 하루 이상 방문한 경우를 방문자로 보고 전체 노인 중 방문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각 공간에 방문한 날짜와 머무는 시간은 방문한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계산했다.

**연구문제 3. 연령과 젠더에 따라 망원동 노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달라지는가?**

다음으로 연령과 젠더에 따라 각 공간을 이용하는 정도가 다른지 살펴보았다. 연령집단은 75세 미만 전기노인과 75세 이상 후기노인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집의 경우 방문자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연령과 젠더에 따라 다른지  $t$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집 이외의 장소들은 연령집단별·성별로 방문자 비율을 비교하고,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그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았다.

**연구문제 4. 망원동 노인들은 각 공간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활동을 하는가?**

각 공간에서 만난 사람은 “도착한 장소에서 교류한 사람이 있었나요?”, “(교류한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교류한 사람이 없었던 경우는 ‘혼자’로 분류하였고, 교류한 사람이 없었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 친구/이웃으로 분류하였다.

각 공간에서 이루어진 활동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조사했다. 활동은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행동분류체계를 참고하여 범주화했다. 이때 개별 활동의 중요성 및 빈도를 고려하여 행동분류체계의 대분류로 범주화한 활동도 있고, 소분류로 범주화한 활동도 있다. 예컨대 가족 돌보기는 ‘함께 사는 배우자 돌보기’, ‘함께 사는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등을 모두 포함한 대분류로 범주화하였다. 한편 식사는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에서 높은 빈도로 중요하게 나타나는 활동이었으므로, 개인유지라는 대분류에 포함하지 않고 소분류로 범주화하였다. 활동들은 최종적으로 식사, 단순휴식, 미디어 이용, 가정관리, 가족 돌보기, 학습, 사회참여, 사회적 교제, 종교활동, 스포츠, 기타 여가로 분

류되었다.

각 공간에서 만난 사람과 했던 활동은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만난 사람과 했던 활동은 중복응답이 가능했기 때문에, 백분율의 기준값은 각 공간에 대한 방문 횟수로 설정하였다. 예컨대 경로당에서 만난 사람에서 친구/이웃이 89.8%인 것은 “경로당에 방문했을 때 89.8%의 비율로 친구/이웃을 만났다.”로 해석된다.

경우에 따라 각 공간을 이용하는 양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 공간을 활발히 이용하는 노인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이때 활발히 이용하는 노인은 그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거나, 그 공간에 빈번히 방문하는 노인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그 노인의 일주일간의 생활일지를 바탕으로 하루 일과를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노인들의 이름은 모두가명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때에 따라 “본 장소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각 공간을 이용하는 이유를 살펴보고도 하였다.

#### 연구문제 5. 각 공간을 이용하는 시간은 망원동 노인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가?

정서는 “귀하는 오늘 다음과 같은 기분을 얼마나 느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을 받았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정서를 많이 느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쁨, 행복, 감사, 우울, 화남, 외로움, 고립감, 소외감 총 8가지 정서를 살펴보았다<sup>1)</sup>. 각 정서에 대한 응답의 분포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I-1]과 같다.

---

1) 조사 당시 정서 관련 문항에는 “나는 오늘 지쳤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제외하였다. 조사하고자 했던 바는 심리적 피곤함이었지만, 노인들이 신체적 피곤함과 관련하여 응답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표 III-1] 개별 정서의 응답분포와 평균 및 표준편차

| 정서  | 그렇지<br>않다<br>(%) | 그렇지<br>않은<br>편이다(%) | 그렇다<br>(%) | 매우<br>그렇다<br>(%) | <i>m(sd)</i><br>(점) |
|-----|------------------|---------------------|------------|------------------|---------------------|
| 기쁨  | 4.5              | 12.8                | 53.8       | 28.9             | 3.07(0.77)          |
| 행복  | 4.5              | 14.8                | 49.1       | 31.6             | 3.08(0.80)          |
| 감사  | 5.6              | 13.9                | 51.6       | 28.9             | 3.04(0.81)          |
| 우울  | 62.8             | 20.9                | 13.9       | 2.5              | 1.56(0.82)          |
| 화남  | 79.4             | 14.8                | 4.5        | 1.4              | 1.28(0.61)          |
| 외로움 | 76.0             | 16.4                | 5.8        | 1.8              | 1.33(0.67)          |
| 고립감 | 75.6             | 15.3                | 7.2        | 2.0              | 1.36(0.70)          |
| 소외감 | 81.8             | 14.1                | 3.6        | 0.5              | 1.23(0.52)          |

주)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아래에 적힌 수치는 446일간의 응답 중 해당 응답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개인 내 변동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각 공간에서 머문 시간과 정서를 아래의 수식과 같이 Z-score로 변환하였다. 이는 각 공간에서 머무르는 시간과 정서의 변동양상에서 개인차를 통제해주어서, 공간맥락에 따른 개인 내 정서변동의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준다. 각 공간에서 머무른 시간의 Z-score가 0보다 크면 평소보다 그 공간에서 오래 머물렀음을 의미하고, 0보다 작으면 평소보다 짧은 시간 머물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서의 Z-score가 0보다 크면 평소보다 그러한 감정을 많이 느꼈음을 의미하고, 0보다 작으면 평소보다 그러한 감정을 덜 느꼈음을 의미한다.

$$\text{공간별 시간의 } Z\text{-score} = \frac{\text{그 날 머문 시간} - \text{일주일 동안 머문 시간의 평균}}{\text{일주일 동안 머문 시간의 표준편차}}$$

$$\text{정서의 } Z\text{-score} = \frac{\text{그 날의 정서} - \text{일주일 동안 느낀 정서의 평균}}{\text{일주일 동안 느낀 정서의 표준편차}}$$



Z-score로 변환한 후,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각 공간에서 머무른 시간의 Z-score가 정서의 Z-score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때 개인을 기준으로 클러스터링을 하여, 7일치의 Z-score가 가지는 상관관계를 통제해주었다. 이를 통해 각 공간에서 머무르는 시간의 개인 내 변동이 개인 내 정서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단순회귀분석은 각 공간을 방문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 IV. 연구결과

### 1. GPS 데이터로 살펴본 노인의 활동반경

먼저, 일주일간 수집한 GPS 데이터를 바탕으로 망원동 노인들의 활동반경을 살펴보았다. 아래의 <그림 IV-1>에서 나타나듯이 GPS 좌표는 전반적으로 망원1동과 망원2동에 밀집되어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노인은 학교나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건강이 약화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동네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을 뒷받침하는 결과였다(강은나, 2017; Glass et al., 2003). 망원동 이외의 곳에 찍힌 좌표들을 살펴보면 주로 지하철역 근처나 흔히 노인의 집결지라 불리는 종로3가에 분포해있었다. 그리고 망원동은 한강 근처에 위치한 동네인데, 북서쪽으로 길게 뻗은 좌표들은 한강공원을 산책한 노인들의 이동경로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노인들의 활동반경을 측정한 결과, 전체 평균이 1.9km로 나타났다. 마포구의 면적은 23.9km<sup>2</sup>, 망원1동의 면적은 1.1km<sup>2</sup>, 망원2동의 면적은 0.7km<sup>2</sup>임을 고려하였을 때, 노인들의 생활반경은 일반적으로 구(區) 단위보다는 동(洞) 단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활동반경을 연령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활동반경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노인(N=18)들의 평균 활동반경은 2.51km, 70대 노인(N=30)들의 평균 활동반경은 1.62km, 80대 노인(N=7)들의 평균 활동반경은 1.53km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노년기에 접어들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상생활에서 동네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림 IV-1> 망원동 노인들의 GPS 데이터 분포 양상 (N=55)

## 2. 일상재구성법으로 살펴본 노인의 일상생활 공간과 정서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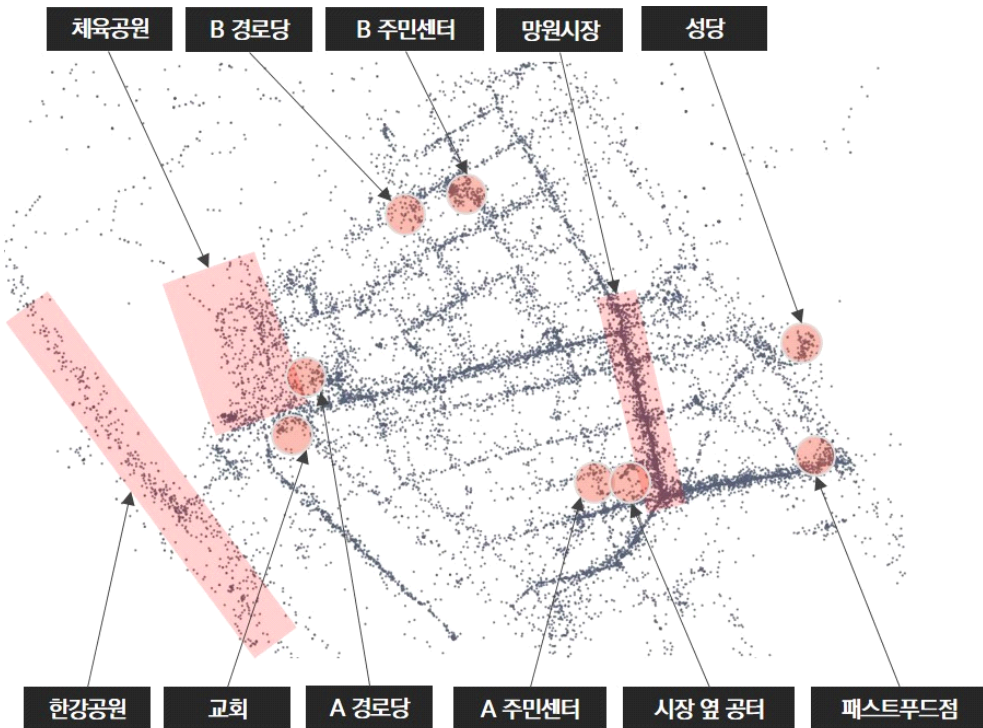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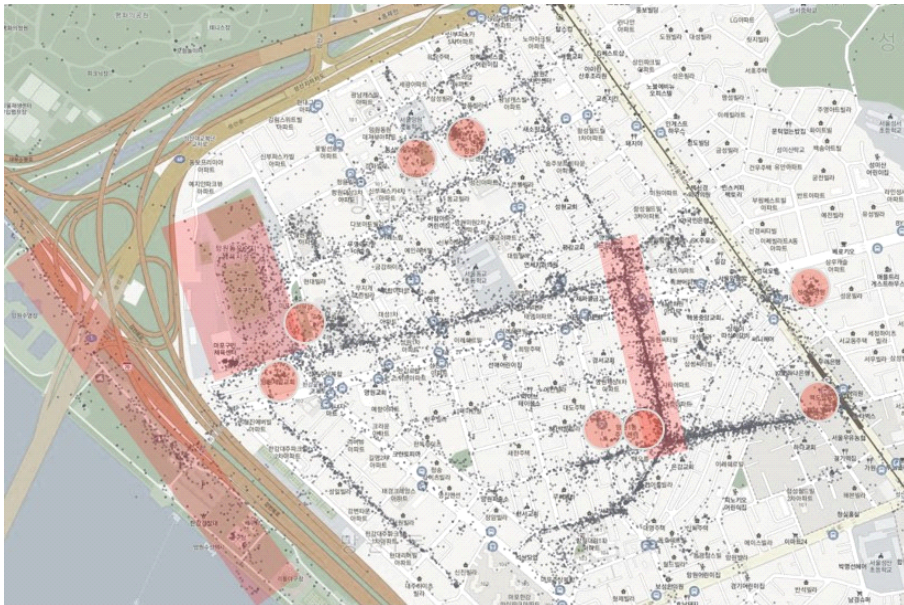
일상재구성법 조사 결과, 망원동 노인들이 머무르며 가족·이웃과 상호 작용하는 공간은 다음 [표 IV-1] 및 <그림 IV-2>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었다. 노인들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주민센터와 같이 노인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 외에도 성당,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을 이용하기도 하고, 한강공원, 운동장, 시장 옆 공터와 같은 동네의 오픈스페이스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망원동은 동네의 중심부에 망원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이 있는 것이 특징적이었는데, 이 시장을 방문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외에도 맥도날드, 파리바게트와 같은 패스트푸드점과 빵집을 방문하거나 이웃의 집/일터를 방문하여 교류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IV-1] 각 공간에 대한 방문자 비율, 방문한 날짜, 머무는 시간

| 활동공간      | 방문자 비율<br>(단위: 명, %) | 방문한 날짜<br>(단위: 일) | 머무는 시간<br>(단위: 시:분) |      |       |
|-----------|----------------------|-------------------|---------------------|------|-------|
|           | n(%)                 | m(sd)             | m(sd)               | min  | max   |
| 집         | -                    | -                 | 17:15(3:31)         | 6:10 | 24:00 |
| 경로당       | 20(30.3)             | 3.6(2.6)          | 3:47(2:03)          | 0:20 | 9:00  |
| 복지관/주민센터  | 23(34.9)             | 3.1(1.6)          | 2:01(1:02)          | 0:20 | 6:00  |
| 종교시설      | 40(60.6)             | 2.8(2.1)          | 2:44(2:00)          | 0:20 | 9:40  |
| 오픈스페이스    | 45(68.2)             | 3.1(2.0)          | 1:31(0:50)          | 0:10 | 4:30  |
| 시장/대형상점   | 51(77.3)             | 2.9(1.5)          | 0:46(0:41)          | 0:10 | 4:00  |
| 패스트푸드점/빵집 | 15(22.7)             | 2.1(1.4)          | 1:24(0:56)          | 0:10 | 3:50  |
| 이웃의 집/일터  | 28(42.4)             | 2.1(1.4)          | 2:12(1:48)          | 0:10 | 8:20  |

주<sub>1</sub>) 방문자 비율은 연구참여자 66명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하였다.

주<sub>2</sub>) 방문한 날짜와 머무는 시간은 각 공간을 방문한 노인만을 대상으로 계산하였다.



<그림 IV-2> 망원동 노인들의 주요 일상생활 공간 (N=55)

연령과 젠더에 따라 각 공간을 이용하는 양상이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IV-2], [표 IV-3]과 같다. [표 IV-1], [표 IV-2], [표 IV-3]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각 공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IV-2] 집에서 머문 시간: 연령집단별 · 성별 비교

| 활동공간 | 연령집단 ( $N_{\text{전기}}=41, N_{\text{후기}}=24$ ) |             |      | 성별 ( $N_{\text{여성}}=40, N_{\text{남성}}=26$ ) |             |      |
|------|---|-------------|------|---|-------------|------|
|      | 전기노인  | 후기노인        | $t$  | 여성  | 남성          | $t$  |
|      | $m(sd)$                                       | $m(sd)$     |      | $m(sd)$                                     | $m(sd)$     |      |
| 집    | 17:21(2:18)                                   | 16:58(2:33) | 0.82 | 17:27(2:19)                                 | 16:50(2:26) | 0.94 |

주) 단위: 시:분

[표 IV-3] 각 공간에 대한 방문자 비율: 연령집단별 · 성별 비교

| 활동공간      | 연령집단 ( $N_{\text{전기}}=41, N_{\text{후기}}=24$ ) |          |          | 성별 ( $N_{\text{여성}}=40, N_{\text{남성}}=26$ ) |          |          |
|-----------|---|----------|----------|---|----------|----------|
|           | 전기노인  | 후기노인     | $\chi^2$ | 여성  | 남성       | $\chi^2$ |
|           | 명(%)  | 명(%)     |          | 명(%)  | 명(%)     |          |
| 경로당       | 7(17.1)                                       | 12(50.0) | 7.93**   | 6(15.0)                                     | 14(53.4) | 11.26**  |
| 복지관/주민센터  | 16(39.0)                                      | 6(25.0)  | 1.33     | 18(45.0)                                    | 5(19.2)  | 4.61*    |
| 종교시설      | 25(61.0)                                      | 15(62.5) | 0.01     | 29(72.5)                                    | 11(42.3) | 6.02*    |
| 오픈스페이스    | 27(65.9)                                      | 17(70.8) | 0.17     | 23(57.5)                                    | 22(84.6) | 5.34*    |
| 시장/대형상점   | 32(78.1)                                      | 18(75.0) | 0.08     | 35(87.5)                                    | 16(61.5) | 6.05*    |
| 패스트푸드점/빵집 | 11(26.8)                                      | 4(16.7)  | 0.88     | 8(20.0)                                     | 7(26.9)  | 0.43     |
| 이웃의 집/일터  | 20(48.8)                                      | 8(33.3)  | 1.47     | 20(50.0)                                    | 8(30.77) | 2.39     |

## 1) 집

노인들이 하루 동안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평균 17시간 15분으로, 다시 말해 6시간 45분을 집 밖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 시간대별로 집에 머무르는 노인의 비율을 살펴보면([표 IV-4]), 대략 아침 7시부터 집 밖으로의 외출이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후 3시경에 집에 머무르는 노인의 비율은 30.4%로 가장 낮아졌다. 즉, 노인들이 외출해있을 확률은 3~4시경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연령이나 젠더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표 IV-2]), 여성이 남성에 비해 40분가량 많고, 전기노인이 후기노인에 비해 25분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t$  검정 결과 그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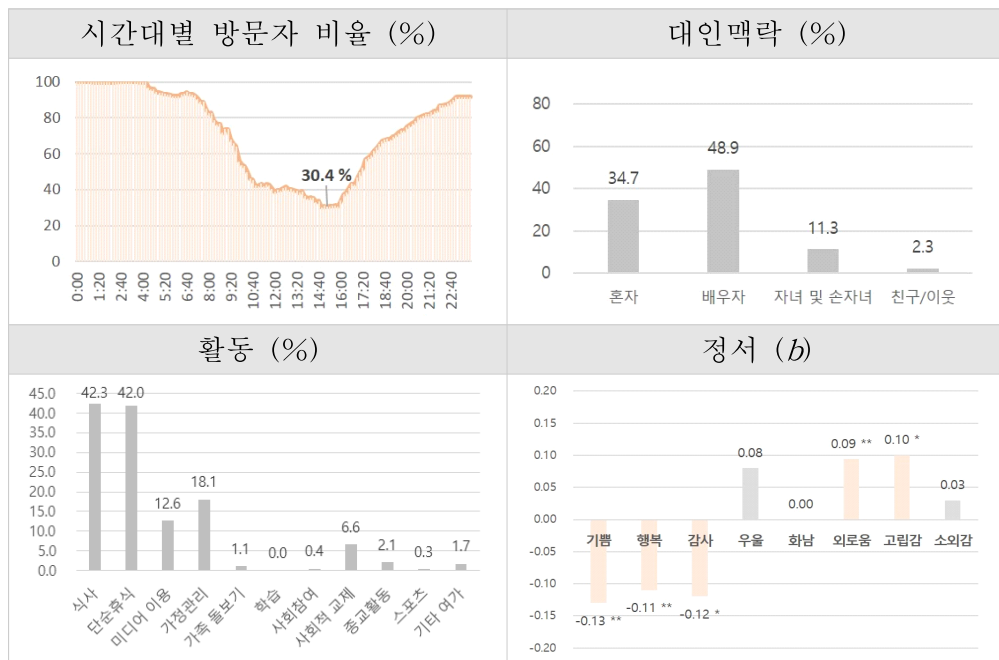
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살펴보면([표 IV-4]), 식사(42.3%)와 단순 휴식(42.0%)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가사일(18.1%)이나 TV 시청과 같은 미디어 이용(12.6%), 사회적 교제(5.5%)도 높은 빈도로 이루어졌다. 집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를 살펴보면([표 IV-4]), 배우자와 함께 있었던 경우가 48.9%로 가장 많았고, 혼자 있는 경우가 34.7%로 그 뒤를 이었다. 자녀 및 손자녀와 있었던 경우는 11.3%, 친구/이웃과 있었던 경우는 2.3%로 나타났다.

그리고 12명의 노인들은 일주일의 조사기간 중 한 번도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던 날이 있었다. 조사가 이루어진 기간은 김장철이었는데, 5명은 김장을 하느라 외출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 외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외출을 하지 않은 경우가 4명 있었고, 주말이어서 외출을 안 한 경우는 2명, 약속이 없어서 외출하지 않은 경우는 1명이 있었다.

집에서 머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서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집에서 머무른 시간의 Z-score가 정서의 Z-score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표 IV-4]). 그 결과 집에 머문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쁨( $b=-.13$ )과 행복( $b=-.11$ )과 감사함( $b=-.12$ )을 느끼는 정도가 낮아지고 외로움( $b=.09$ )과 고립감( $b=.10$ )을 느끼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노년기에 집이 외로움이나 고립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안겨주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논의와 맞닿아 있다(Sixsmith & Sixsmith, 2008; Queen, Stawski, Ryan, & Smith, 2014). 또한 집에서는 주로 식사, 가사일과 같은 일상의 필수적인 활동이나 단순휴식이나 TV 시청과 같은 정적인 여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수동적 여가는 긍정정서를 낮춘다는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Goodwin, Intrieri, & Papini, 2005).

[표 IV-4] 집: 시간대별 방문자비율, 대인맥락, 활동, 정서



\*  $p < 0.05$  \*\*  $p < 0.01$  \*\*\*  $p < 0.001$

주<sub>1</sub>) 대인맥락 및 활동과 관련하여 백분율은 각 공간을 방문한 횟수, 즉 노드 (node)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이는 이하 [표 IV-12]까지 모두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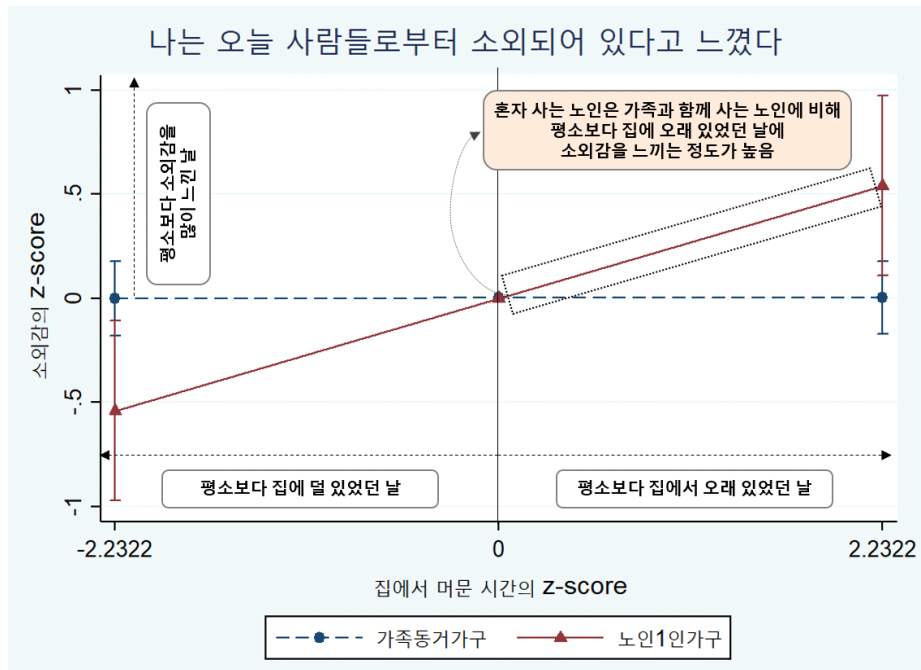
주<sub>2</sub>) 정서에 나와 있는 수치는 단순회귀분석 결과의 회귀계수( $b$ )값이다. 숫자 옆의 \*, \*\*, \*\*\*은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보여준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경우 회귀계수가 유의함을 의미한다. 이는 이하 [표 IV-12]까지 모두 동일하다.

주<sub>3</sub>) 대인맥락과 활동의 표본 수는 집에 있었던 노드의 횟수인 707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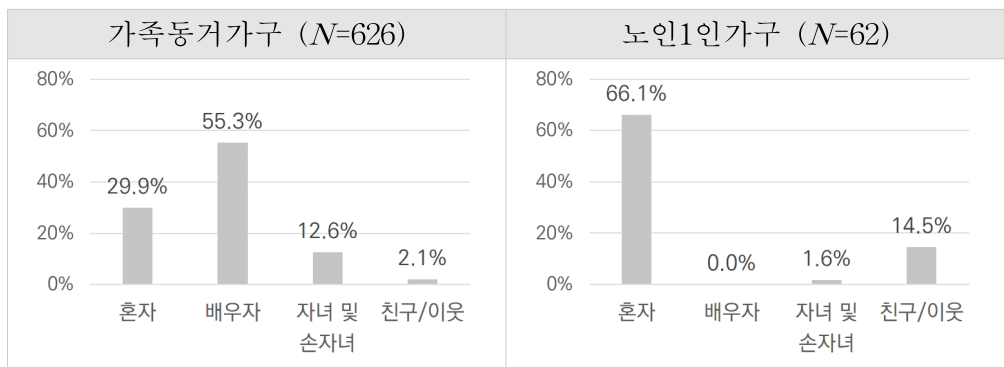
( $N=707$ ). 정서에서 표본 수는 전체 노인 66명의 440일치 데이터이다 ( $N=440$ ).

이에 더해 집에 머물렀던 시간과 정서의 관련성이 가구형태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그림 IV-3>). 가구형태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소외감에 있어서 가구형태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 $b=.24$ ).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들은 평소보다 집에 머물렀던 시간이 길어도 자신이 사람들부터 소외되었다고 느끼지 않았던 반면, 혼자 사는 노인들은 평소보다 집에 오래 머물렀던 날에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가구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의 영향이 있어 보인다. 아래 [표 IV-5]는 가구형태별 집에서의 대인맥락을 보여준다. 가족동거가구의 노인은 집에 있을 때 혼자 있는 경우가 29.9%로 나타났지만, 노인1인가구의 노인은 집에 있을 때 혼자 있는 경우가 66.1%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대인맥락에서의 차이가 노인1인가구에게 있어서 집이 소외의 공간이 되게끔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IV-3> 집에 머무른 시간의 z-score와 소외감의 z-score  
: 가족구조의 조절효과 (N=440)

[표 IV-5] 가구형태별 집에서의 대인맥락 비교



## 2) 경로당

[표 IV-1]을 보면 전체 노인 66명 중 20명은 일주일 중 하루 이상 경로당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을 방문하는 노인들은 일주일간 평균 3.6일을 경로당에 방문했으며, 6일 이상 방문한 경우도 20명 중 9명이나 있었다. 경로당은 일반적으로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으므로, 사실상 경로당이 문을 여는 날이면 매일 방문했다고 볼 수 있다. 경로당을 방문하는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3시간 47분 정도 경로당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래 머무르는 노인은 9시간까지 머무르기도 했다.

이처럼 규칙적으로 방문하여 오래 머무르는 모습은 직장에 출근하는 모습과도 닮아있어, 노인들은 경로당에 가는 것을 “출근”한다고 말하고, 경로당에서 만나는 노인들을 “동료들”이라고 일컬었다. 경로당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선 “같이 점심도 먹고 대화도 나눌 수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심심하고 습관이 되어서”,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5000원 회비를 내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실 수 있어서”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당연하게 가는 하루 일과”, “집처럼 드나드는 장소”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경로당에 가장 자주 방문하고, 오래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난 79세 정태영 할아버지의 일주일간의 일과를 구성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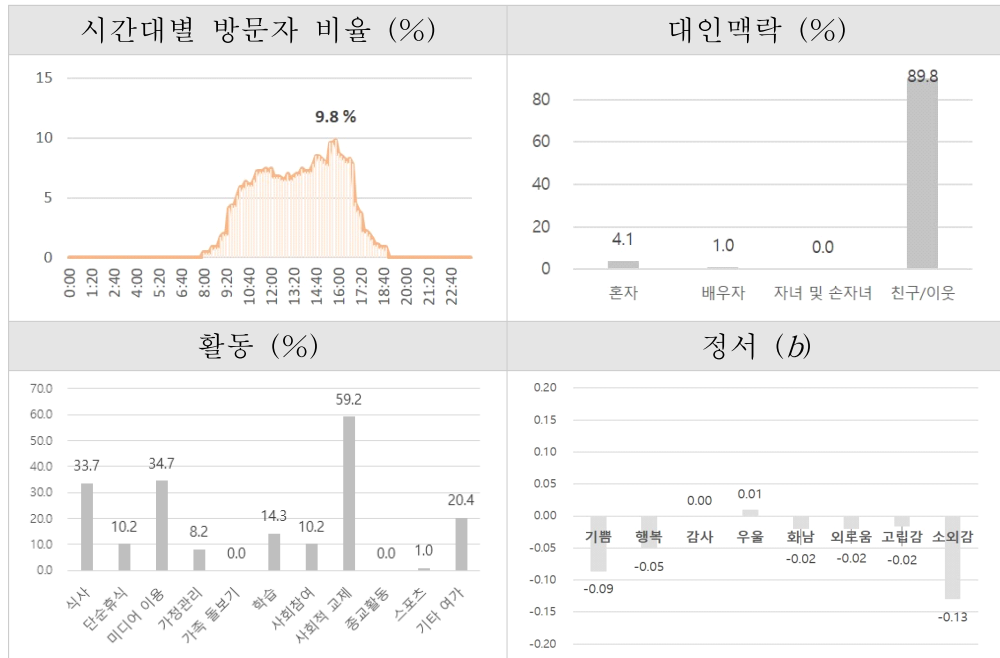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침 8시, 늦으면 아침 10시까지 경로당으로 향한다. 때로는 경로당에 가기 전에 한강에 들러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기도 한다. 경로당에서 하는 일은 매일 비슷하다. 11시 30분이 되면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경로당 총무 할머니께서 타주시는 커피를 마신다. 점심식사를 한 후에는 TV를 보고 경로당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다가 경로당이 문을 닫는 오후 5시에 집으로 돌아온다. 경로당이 문을 열지 않는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경로당을 방문했다. 월요일에는 구청에서 나와서 해주는 스마트폰 교육을 들었다.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살펴보면([표 IV-6]), 사회적 교제(59.2%)가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TV를 시청(34.7%)하는 경우가 많았고, 점심식사(33.7%)를 함께 하는 경우도 많았다.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 2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기타 여가의 대부분은 고스톱 치기에 해당한다. 경로당의 일상을 연구한 장세길(2006)은 고스톱은 대화가 어려울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기능케 하여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고 보았다. 이 외에도 학습(14.3%)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스마트폰 교육과 같이 구청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듣는 경우였다.

경로당에 방문하는 노인의 비율은 연령과 젠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 전기노인의 17.1%가 경로당을 이용했던 반면, 후기노인의 50.0%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후기노인들이 노인복지관은 ‘젊은 사람이 노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어서(장세길, 2006), 경로당을 주로 방문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젠더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 노인의 15.0%가 경로당을 이용했던 반면, 남성노인의 53.4%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었다. 망원동의 여성노인들은 경로당보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경로당에서 머문 시간이 길어질수록 경험하는 정서가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6]). 오늘 하루 중 가장 즐거웠던 활동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경로당에 6일 이상 방문한 노인 9명 중 3명은 일과가 항상 비슷해서 특별히 즐거울 만한 일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위와 같이 정서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결과는 경로당을 다니는 경우에 하루 일과가 매일같이 반복되는 것의 영향도 있어 보인다. Bouisson과 Swendsen(2003)의 연구에 따르면 일상의 공간과 활동이 규칙적으로 반복(routinization)될수록 경험하는 긍정정서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선행연구와 맞닿아 있는 결과였다.

[표 IV-6] 경로당: 시간대별 방문자비율, 대인맥락, 활동, 정서



\*  $p<0.05$  \*\*  $p<0.01$  \*\*\*  $p<0.001$

주<sub>1</sub>) 시간대별 방문자 비율은 전체 연구참여자 66명을 대상으로 계산하였고, 대인맥락, 활동, 정서는 경로당을 방문한 20명을 대상으로 계산하였다.

주<sub>2</sub>) 대인맥락과 활동의 표본 수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20명이 경로당을 방문한 횟수인 98회이다( $N=98$ ). 정서의 표본 수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20명의 139일치 데이터이다( $N=139$ ).

### 3) 복지관/주민센터

망원동은 행정동인 망원1동과 망원2동으로 구성되는데, 각 행정동의 중심부에는 주민센터가 있어서 노인들은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스포츠·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망원동에서 걸어서 20-30분 거리, 지하철로는 두세 정거장 거리에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마포평생학습관 등의 복지관이 있어서 이러한 복지관을 방문하는 경우도 많았다.

복지관과 주민센터는 여성노인과 75세 미만 전기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 전체 노인 66명 중 23명이 복지관 또는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있었는데([표 IV-1], 이 중 18명이 여성이고, 16명이 75세 미만이었다. 이들은 일주일 중 약 3.1일을 복지관/주민센터에 방문했으며, 방문해서 머무르는 시간은 평균 2시간 정도였다. 복지관/주민센터를 가장 활발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78세 김영임 할머니의 일과를 구성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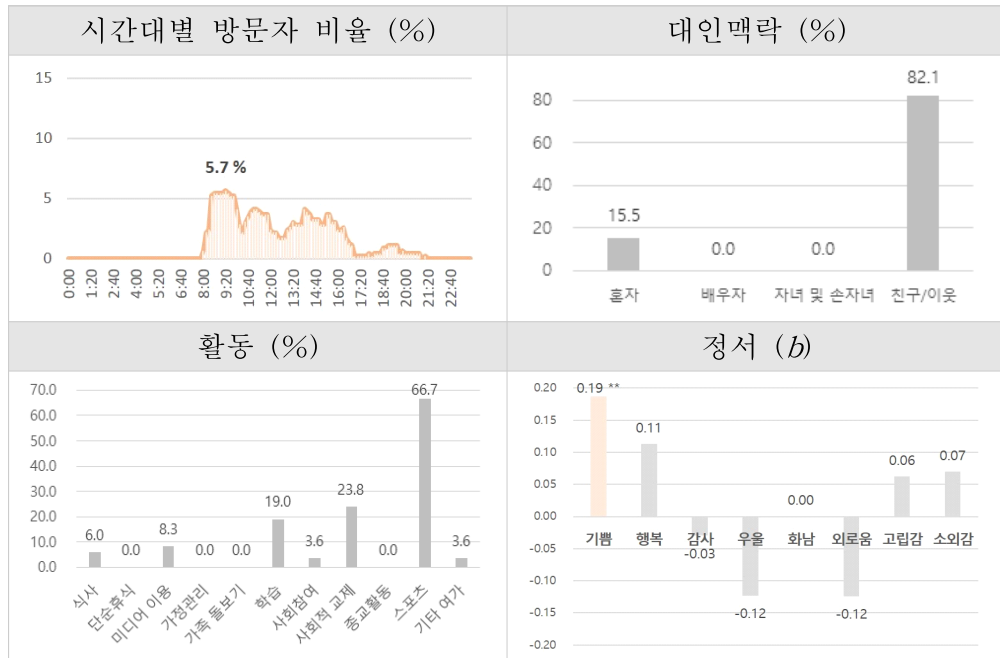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복지관,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망원 2동 주민센터, 마포복지관, 아현복지관 이렇게 세 곳을 번갈아 다닌다. 하루에 두 곳을 방문한 날도 있었다. 보통 하루 중 3시간을 복지관/주민센터에서 보낸다. 망원2동 주민센터와 아현복지관에서는 탁구레슨을 받고, 마포복지관에서는 인문학 수업과 영어 수업을 듣고 영어 동아리반 활동을 한다. 아현복지관은 마사지 기계가 있어서 방문하는 편이다. 보통 복지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떠다. 이렇게 바쁘게 하루를 보내다가 오후 6-7시쯤 집으로 돌아온다.*

복지관/주민센터에서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는 활동([표 IV-7])은 스포츠(66.7%)였는데, 망원동 노인들은 단전호흡, 라인댄스, 국선도, 요가, 탁구 등의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외국어 수업을 듣는 등 학습활동(19.0%)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 다 함께 모여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등의 사회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23.8%).

복지관/주민센터에서 머문 시간이 길수록 정서가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표 IV-7]), 기쁨( $b=.19$ )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활동(한경혜, 최희진, 2018; Whitehead & Blaxton, 2017)과 여가활동(Klumb, 2004; Lawton et al., 2002)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긍정정서를 높게 경험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맞닿아 있다.

[표 IV-7] 복지관/주민센터: 시간대별 방문자비율, 대인맥락, 활동, 정서



\*  $p<0.05$  \*\*  $p<0.01$  \*\*\*  $p<0.001$

주<sub>1</sub>) 시간대별 방문자 비율은 전체 연구참여자 66명을 대상으로 계산했고, 대인 맥락, 활동, 정서는 복지관/주민센터를 방문한 23명을 대상으로 계산했다.

주<sub>2</sub>) 대인맥락과 활동의 표본 수는 복지관/주민센터를 방문한 횟수인 84회이다 ( $N=84$ ). 정서의 표본 수는 복지관/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노인의 160일치 데이터이다( $N=160$ ).

#### 4) 종교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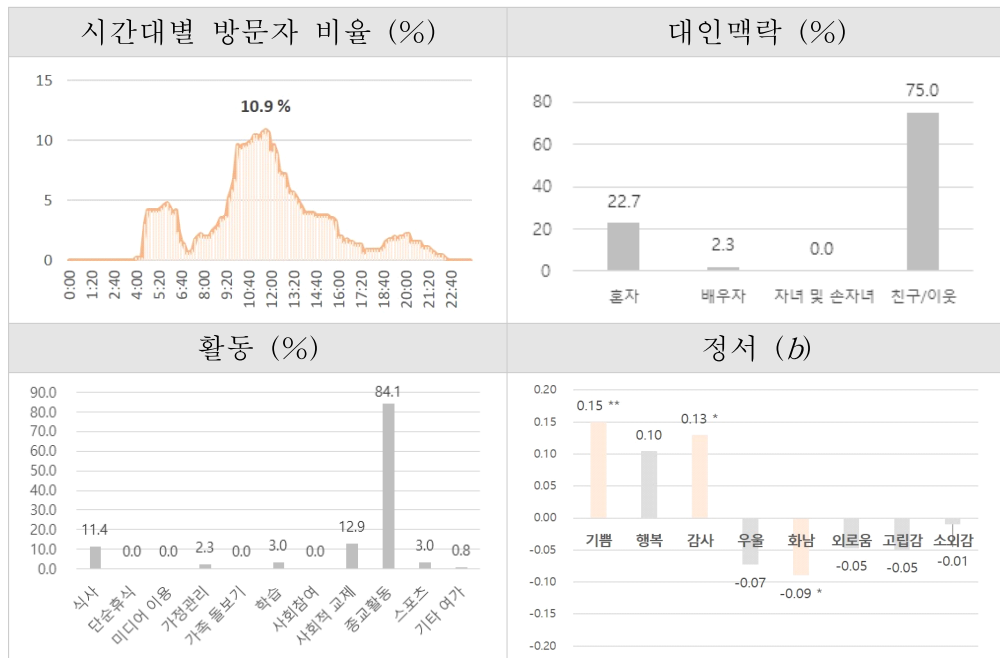
종교시설은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노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전체 연구참여자 중 40명(60.6%)이 일주일 중 종교시설에 방문한 적이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8일 정도 종교시설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 종교시설에 3일 이상 방문하는 노인도 18명만 있었다. 평일에 방문하는 경우는 매일 아침 있는 새벽미사, 새벽예배를 가는 경우가 많았고, 이 외에도 전도모임이나 레지오모임에 참석하는 경우,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2시간 44분을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살펴보면([표 IV-8]), 종교활동이 이뤄지는 경우가 8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적 교제(12.9%)와 식사(11.4%)가 일어나는 빈도도 높게 나타났다. 예컨대 성산동 성당에서는 금요일마다 노인대학과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면 1층의 넓은 강당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종교시설에서 머문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날의 정서가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표 IV-8]), 평소보다 기쁨( $b=.15$ )과 감사( $b=.13$ )를 느끼는 정도가 높고, 화남( $b=-.09$ )을 느끼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종교활동이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윤현숙·원성원, 2010; 전해정, 2004; Koenig, McCullough, & Larson, 2001). 그리고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이 끝난 후 이뤄지는 사회적 교류가 정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표 IV-8] 종교시설: 시간대별 방문자비율, 대인맥락, 활동, 정서



\*  $p<0.05$  \*\*  $p<0.01$  \*\*\*  $p<0.001$

주<sub>1</sub>) 시간대별 방문자 비율은 전체 연구참여자 66명을 대상으로 계산하였고, 대인맥락, 활동, 정서는 종교시설을 방문한 40명을 대상으로 계산하였다.

주<sub>2</sub>) 대인맥락과 활동의 표본 수는 종교시설을 방문한 횟수인 132회이다 ( $N=132$ ). 정서의 표본 수는 종교시설을 방문하는 노인의 277일치 데이터이다( $N=277$ ).

## 5) 오픈스페이스

오픈스페이스는 공원, 거리, 시장 등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개방된 공간을 의미한다(Cattell et al., 2008). 일반적으로 시장은 오픈스페이스에 포함되지만, 망원동에서 망원시장은 특징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에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망원동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오픈스페이스를 살펴보면 골목에 위치한 작은 공원에서부터 망원시장 옆의 공터, 체육센터 앞의 대운동장, 양화대교, 월드컵공원, 한강공원 등 다양한 공간을 이용하고 있었다. 오픈스페이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1시간 31분 정도 오픈스페이스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스페이스에서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는 활동([표 IV-9])은 운동(65.9%)이었다. 운동 다음으로 빈번했던 활동은 사회적 교제(13.4%)였다. 사회적 교제가 이루어진 경우를 살펴보면 한강에서 친구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고스톱을 치는 경우도 있었고, 창덕궁이나 망원시장 옆 공터에서 매일 만나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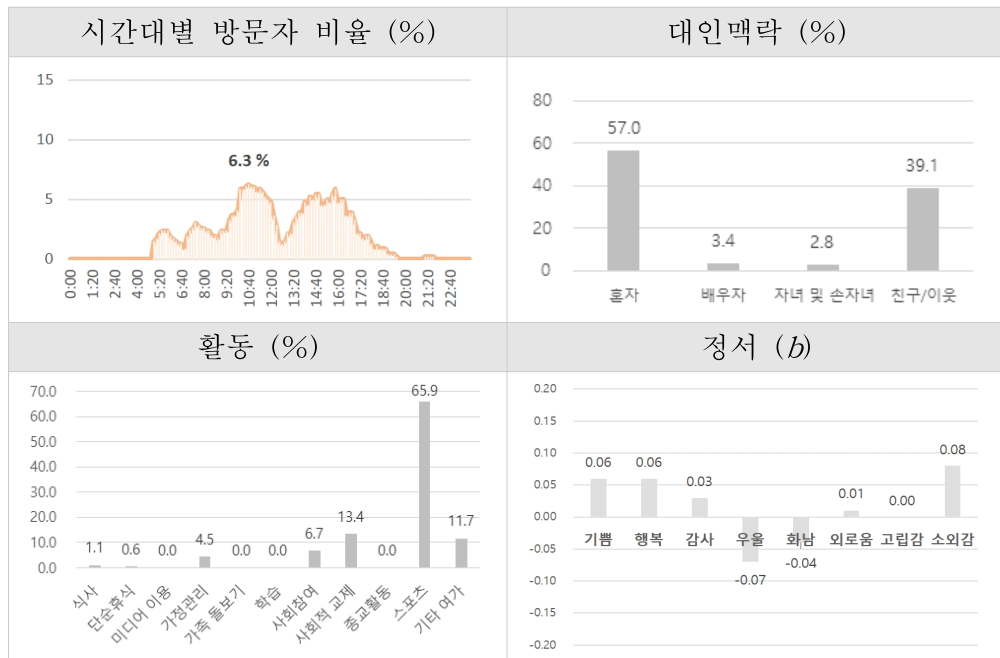
흥미로운 점은 오픈스페이스에서 친구들과 만나 교류하는 노인들의 대부분 남성노인이었다는 점이다([표 IV-3]). 여성노인의 57.5%, 남성노인의 84.6%가 일주일 중 오픈스페이스를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젠더에 따른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했다. 88세 백광현 할아버지와 74세 김덕남 할아버지는 친구들과 오픈스페이스에서 주기적으로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분들의 일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백광현 할아버지는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창덕궁으로 향한다. 오전에는 경로당 북카페에서 책을 읽다가 경로당 동료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시 30분까지 창덕궁으로 간다. 창덕궁 대청마루에서 매일 만나는 회원 5명이 모두 모이면, 산책을 시작하고 중간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그러다가 3-4시쯤이 되면 각자의 집으로 향한다. 가끔은 근처에 있는 오텍집에 들러 막걸리 2-3잔을 함께 한 후 헤어질 때도 있다. 이 모임에서 가장 연장자인 백광현 할아버지는 창덕궁에 가기 전 매번 약국에 들러 함께 마실 박카스나 쌍화당을 산다. 창덕궁 회원들은 늦으면 서로 기다려주고, 안 나오면 서로 전화로 안부를 묻는 사이였다.

망원시장 옆에는 큰 정자가 두 개 있고, 그 주위로 벤치 몇 개가 둘러싼 공터가 있다. 김덕남 할아버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이 곳을 들렀다. 보통 점심식사나 저녁식사 전에 들러 1-2시간 머물다가 집으로 간다. 점심, 저녁 중 한 번만 들르는 날도 있고, 두 번 다 들르는 날도 있다. 김덕남 할아버지는 집에 있으면 시간이 안 가고, 돈 안 들이고 놀만한 데는 이 곳 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옆 공터를 매일 방문한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여쭙보자 놀이터에 있는 남자들이랑 ‘쓸데없는 좌담’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오픈스페이스에서 머문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날의 정서가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9]). 공원의 치유적 경관(therapeutic landscapes)이나 오픈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교류가 정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분석 결과 정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오픈스페이스: 시간대별 방문자비율, 대인맥락, 활동, 정서



\*  $p<0.05$  \*\*  $p<0.01$  \*\*\*  $p<0.001$

주<sub>1</sub>) 시간대별 방문자 비율은 전체 연구참여자 66명을 대상으로 계산하였고, 대인맥락, 활동, 정서는 오픈스페이스를 방문한 45명을 대상으로 계산하였다.

주<sub>2</sub>) 대인맥락과 활동의 표본 수는 오픈스페이스에 방문한 횟수인 179회이다 ( $N=179$ ). 정서의 표본 수는 오픈스페이스에 방문한 노인의 304일치 데이터이다( $N=304$ ).

## 6) 시장/대형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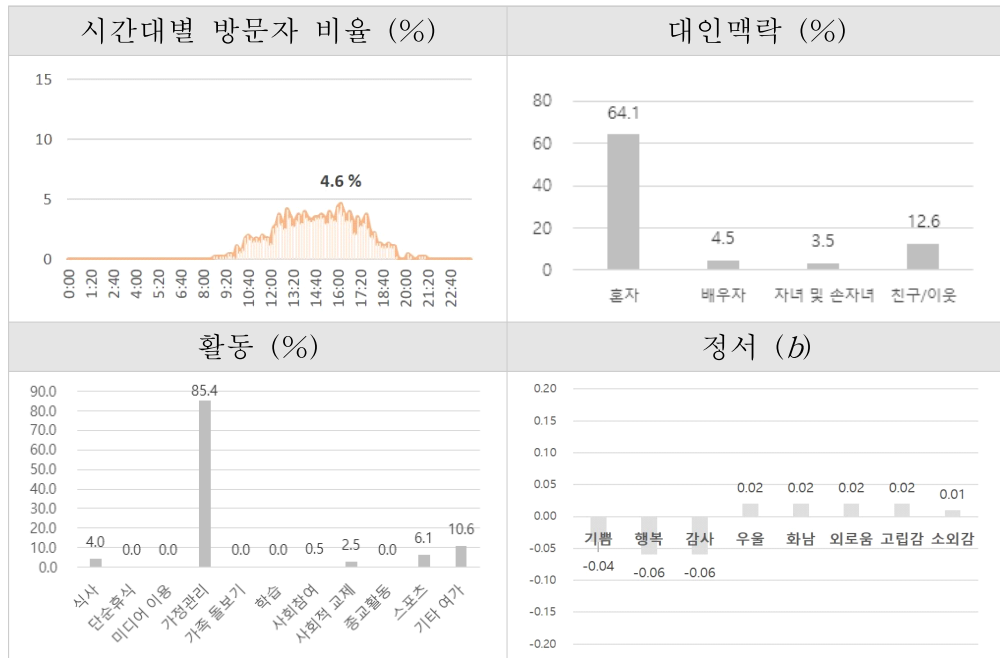
망원동은 동네의 중심부에 망원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최근에는 여러 매스컴을 통해 망원시장과 망리단길이 소개되면서 젊은 세대가 많이 찾는 공간이 되었다. 그래서 망원시장에 방문했을 때에는 평일이든, 주말이든 사람이 북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망원동에서 걸어서 2-30분 거리에는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상점이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이 공간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노인 중 77.3%가 일주일 동안 시장과 대형상점을 방문한 적이 있었으며, 약 2.9일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 그리고 시장과 대형상점에 방문하여 약 46분가량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의 대인맥락을 살펴보면([표 IV-10]), 대부분(64.1%)은 혼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곳에서 친구/이웃을 만나는 경우(12.6%)도 있었다. 시장에서의 활동을 살펴보면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경우가 85.4%로 주를 이루었다. 이 외에도 산책 삼아 시장을 방문한 경우도 6.1%만큼 있었다. 망원동 노인들은 시장에서 산책하는 이유로 시장이 볼거리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구경하기 재밌으며, 다른 곳에 비해 덜 춥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곳에서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질 때도 2.5%만큼 있었는데, 친구와 함께 물건들을 구경하거나, 시장에서 단골로 다니는 곳의 주인과 수다를 떠는 경우였다. 선행연구들은 시장, 쇼핑몰과 같은 일상의 열린 공간이 이웃과의 가벼운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고 시장의 북적북적한 분위기가 머무르는 사람에게 활기를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Cattell et al., 2008; MacLean Brown, & Sijpkes, 1985), 망원시장에서 노인들이 산책하거나 교류하는 모습은 이러한 선행연구와 맞닿아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시장과 대형상점에서 머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서가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는데, 정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0]). 시장과 대형상점이 제공하는 활기가 정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지만, 그곳에서 머무른 시간은 정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에 혼자 방문하여, 필요한 것을 사서 바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일 수 있다.

[표 IV-10] 시장/대형상점: 시간대별 방문자비율, 대인맥락, 활동, 정서



\*  $p<0.05$  \*\*  $p<0.01$  \*\*\*  $p<0.001$

주<sub>1</sub>) 시간대별 방문자 비율은 전체 연구참여자 66명을 대상으로 계산했고, 대인 맥락, 활동, 정서는 시장과 대형상점을 방문한 51명을 대상으로 계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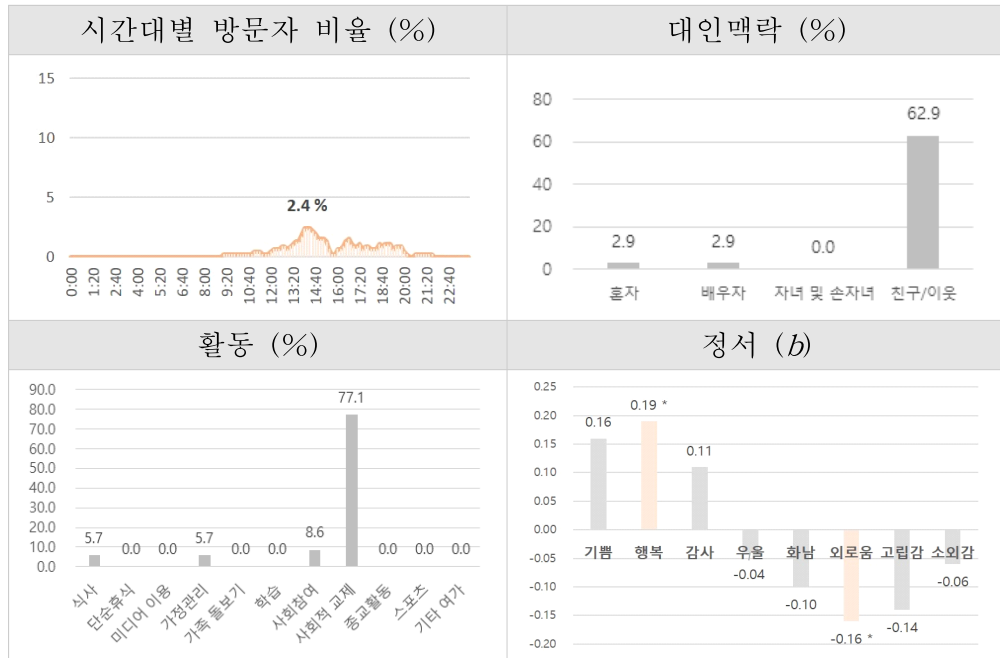
주<sub>2</sub>) 대인맥락과 활동의 표본 수는 시장/대형상점에 방문한 횟수인 198회이다 ( $N=198$ ). 정서의 표본 수는 시장/대형상점에 방문한 노인의 350일치 데이터이다( $N=350$ ).

## 7) 패스트푸드점/빵집

경로당, 노인복지관과 같이 노인을 위해 마련된 공간 외에도 패스트푸드점과 빵집을 방문하여 친구 및 이웃과 교류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전체 노인의 22.7%가 일주일 중 패스트푸드점과 빵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일주일 중 평균적으로 2.1일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IV-1]). 혼자 방문하거나, 가족과 방문한 경우는 매우 적었고, 대부분의 경우 친구 또는 이웃과 함께 방문한 경우였다([표 IV-11]). 이들은 주로 맥도날드, 롯데리아, KFC, 뚜레쥬르, 파리바게트와 같은 곳을 방문하여 수다를 떠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곳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선 커피가 저렴하고, 지하철역에서 가까우며, 매장이 크고 2층이 있어서 눈치 볼 필요 없이 오래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패스트푸드점과 빵집을 방문했을 때 평균적으로 1시간 24분을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점이나 빵집을 방문하게 되는 경로를 살펴보면 친구와 미리 약속을 잡아서 만나는 경우이거나, 복지관, 주민센터, 종교시설에 들렀다가 그곳에서 만난 친구와 이동하여 수다를 떠는 경우였다.

패스트푸드점과 빵집에서 머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서가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 평소보다 행복감( $b=.19$ )을 느끼는 정도가 높고 외로움( $b=-.16$ )을 느끼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heang(2002)이 패스트푸드점에 머무르는 노인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 간에 자유로운 대화와 웃음이 오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처럼 패스트푸드점과 빵집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롭고 즐거운 상호작용이 노인의 행복을 높이고, 외로움을 낮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IV-11] 패스트푸드점/빵집: 시간대별 방문자비율, 대인맥락, 활동, 정서



\*  $p<0.05$  \*\*  $p<0.01$  \*\*\*  $p<0.001$

주<sub>1</sub>) 시간대별 방문자 비율은 전체 연구참여자 66명을 대상으로 계산하였고, 대인맥락, 활동, 정서는 패스트푸드점이나 빵집을 방문한 15명을 대상으로 계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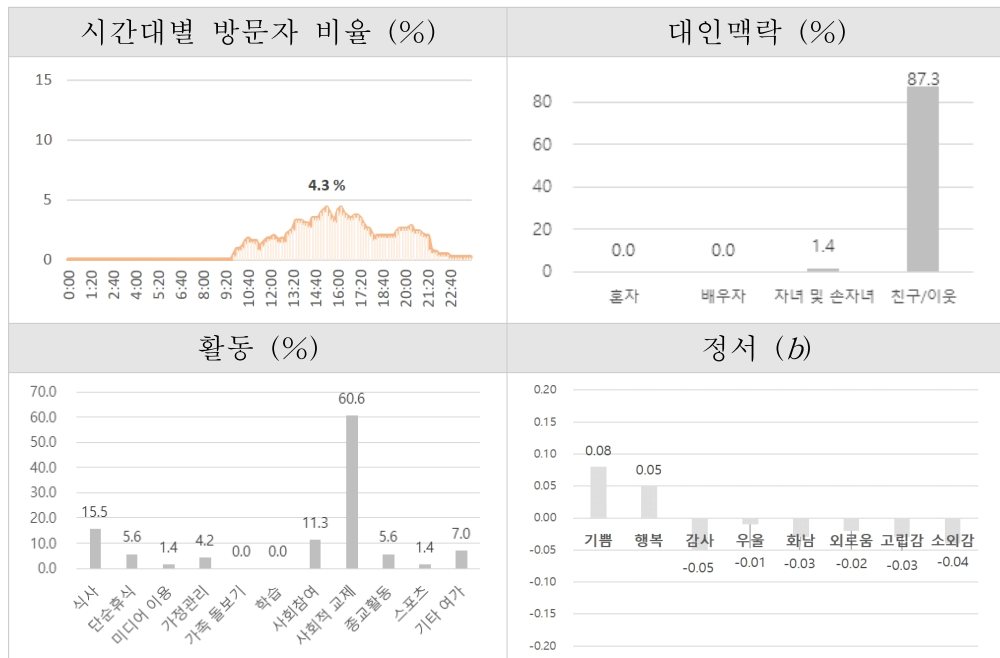
주<sub>2</sub>) 대인맥락과 활동의 표본 수는 패스트푸드점/빵집에 방문한 횟수인 35회이다( $N=35$ ). 정서의 표본 수는 패스트푸드점/빵집에 방문한 노인의 102일치 데이터이다( $N=102$ ).



## 8) 이웃의 집/일터

이웃의 집이나 일터를 방문하여 교류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할 수 있었다. 일주일 동안 전체 노인 중 42.4%가 이웃의 집이나 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2.1일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 이는 평균 정주기간이 긴 망원동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은 망원동에서 평균 26년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망원동에 거주한지 10년 이상 된 노인은 전체의 80%에 달했으며, 40년 이상 된 노인들도 30%에 달했다. 이처럼 대부분 망원동에서 오래 거주한 노인들이다보니, 서로의 집이나 일터를 방문할 정도로 친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웃의 집을 방문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음식을 함께 먹자고 초대할 경우, 병문안을 간 경우, 집에 있자니 우울해서 친구의 집으로 간 경우, 커피 마시며 대화하러 간 경우 등 다양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82세 김화자 할머니는 근처 성당친구의 집에 일주일 중 4번이나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 방문하면 보통 밤 9시나 10시까지 5-6시간 머무르며 저녁식사도 함께 하고 드라마도 같이 본다고 하셨다. 이웃의 일터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주로 동네에 있는 미용실, 부동산, 옷가게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고, 이웃의 일을 도와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이웃의 집/일터에 머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서가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2]).

[표 IV-12] 이웃의 집/일터: 시간대별 방문자비율, 대인맥락, 활동, 정서



\*  $p<0.05$  \*\*  $p<0.01$  \*\*\*  $p<0.001$

주<sub>1</sub>) 시간대별 방문자 비율은 전체 연구참여자 66명을 대상으로 계산하였고, 대인맥락, 활동, 정서는 이웃의 집이나 일터를 방문한 28명을 대상으로 계산하였다.

주<sub>2</sub>) 대인맥락과 활동의 표본 수는 이웃의 집/일터에 방문한 횟수인 71회이다 ( $N=71$ ). 정서의 표본 수는 이웃의 집/일터에 방문한 노인의 188일치 데이터이다( $N=188$ ).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공간과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Aging in Place를 실현하려는 정책에는 노인의 지역사회 내 삶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을 살펴본 연구가 드물고, 도시 속 노인의 공간에 대한 담론이 무성한 것과는 달리 그들의 생활공간을 실증적으로 들여다 본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인으로 도시에서 살아가기”에 대한 구체적 모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한 동네인 망원동을 연구대상지로 삼고, 일상재구성법을 통해 노인들이 이용하는 지역사회 내 공간과 그곳에서의 상호작용 및 정서경험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망원동 노인들의 평균 활동반경은 1.9km로, 구(區)의 면적보다는 동(洞)의 면적에 가까운 수치로 나타났다. WHO(2007)는 도시가 고령친화적인 환경이 되기 위해선 노인이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 여가 및 사회참여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생활반경을 고려하여 노인을 위한 공간이나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더해 연령집단별로 활동반경을 살펴본 결과, 선행연구(강은나, 2017; Inagami et al., 2007)에서 가정하던 바와 같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활동반경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인의 삶의 질에 있어 지역사회가 가지는 중요성이 높아질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노인의 삶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영향(neighborhood effect)을 살펴본 연구들은 구를 분석단위로 한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만약 노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두고 진행하는 연구라면 분석단위를 좁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노인들은 하루 평균 17시간 15분을 집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하루 평균 6시간 45분 정도를 집 밖에서 보내는 것으로, 상당 시간을 집 밖에서 보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에서는 식사,

집안일과 같이 일상의 필수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단순휴식, TV시청과 같은 정적인 여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집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쁨, 행복, 감사와 같은 긍정정서를 느끼는 정도가 낮아지고, 외로움, 고립감과 같은 부정정서를 느끼는 정도가 높아졌다. 이는 노년기에 집이 외로움을 안겨주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논의와 맞닿아 있는 결과이다(우국희, 2017; Sixsmith & Sixsmith, 2008). 본 연구의 결과는 Aging in Place와 관련하여 집에서 거주하는 것만으로는 노년기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없으며,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살아갈 때 비로소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들은 평소보다 집에 오래 있었어도 사람들로 부터 소외되었다고 느끼지 않았던 반면, 혼자 사는 노인들은 평소보다 집에 있었던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로 부터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혼자 사는 노인에게 있어 지역사회 내 통합의 중요성이 더욱 높을 것임을 보여준다. 현재 노인1인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역사회가 노인의 사회적 통합을 가능케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할 필요성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셋째, 경로당과 복지관/주민센터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경로당은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반면, 복지관과 주민센터에서 보낸 시간은 기쁨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노인복지법 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는 같은 범주로 분류되는 두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나 정서에 대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먼저 경로당에서는 주로 TV 시청, 점심식사, 고스톱 치기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반면, 복지관/주민센터에서는 스포츠와 학습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서에 대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를 몇 가지 추론해볼 수 있다. 우선 각 공간에서 다른 성격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TV시청과 같은 수동적 여가는 긍정정서를 낮추는 반면(Goodwin et al., 2005), 운동, 학습, 활동의 다양성은 긍정정서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한경혜, 최희진, 2018; Fingerman et al., 2019; Watson, 1988; Whitehead & Blaxton,

2017). 따라서 스포츠 및 학습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복지관·주민센터에서 긍정정서가 높게 나타났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일상의 반복(routinization)과 관련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새로운 경험의 제공 없이 일상의 공간과 활동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긍정정서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는데(Bouisson & Swendsen, 2003),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중에는 일과가 항상 비슷해서 특별히 즐거울만한 일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복지관/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노인들의 경우 1-2시간의 수업이 끝난 뒤에 다른 수업을 듣거나, 다른 공간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비교적 일상의 변수가 있는 편이었다. 반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경로당이 문을 닫을 때까지 오랜 시간 머무르다가 집에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상의 공간과 활동이 반복되는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점에서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종교시설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그 날 기쁨, 감사와 같은 긍정정서를 느낀 정도가 높아지고, 화남과 같은 부정정서를 느낀 정도가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종교시설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노인의 사회적 통합을 돕는 공간으로 언급되곤 한다(Grefe, 2011; Mahmood et al., 2012). 이러한 논의와 밀접하게 본 연구 또한 종교시설에서 노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과반수가 일주일 중 종교시설에 방문한 적이 있었고, 평일미사, 평일예배, 기도모임, 전도모임 등에 참석하면서 일주일에 여러 번 방문한 노인도 상당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프로그램이 있어서 노인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의 장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교류 속에서 경험하는 친근한 관계가 노인의 긍정정서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망원시장 옆 공터, 대운동장, 월드컵공원, 한강공원과 같은 오픈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오픈스페이스에 방문한 경우의 대부분은 운동을 하려고 방문한 경우였지만, 다른 노인들과 교류하기 위해 망원시장 옆 공터와 같은 곳을 방문하는 노인들도

있었다. 선행연구들은 이웃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위해선 지역사회 내 열린 공간이 필요함을 논한 바 있다(조명래, 2013; 한경혜 외, 2005; Peace, 2013). 이러한 논의와 부합하게 망원시장 옆의 넓은 공터에 남성노인들이 모여 상호작용하는 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오픈스페이스에서 머문 시간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선행연구에 따르면 오픈스페이스는 시장과 대형 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Cattell et al., 2008), 망원동은 동네의 중심부에 망원시장이라는 큰 재래시장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기 때문에 시장 및 대형상점을 오픈스페이스로부터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들은 노인들이 백화점이나 대형상점에 머무르는(mall lingering) 이유는 사회적으로 활기 있는 분위기가 그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보았다(Cattell et al., 2008; Graham, Graham, & MacLean, 1991; Jacobs, 1984). 이러한 선행연구의 논의와 유사하게 몇몇 노인은 망원시장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고,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망원시장을 산책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머문 시간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오픈스페이스와 시장이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오픈스페이스나 시장에서 이루어졌던 활동 중 사회적 교류나 산책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도 단순운동이나 생필품 구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섯째, 패스트푸드점과 빵집의 카페에서 친구·이웃과 교류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은 Oldenburg의 제3의 공간(the third place) 논의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언급되고 있는 공간이다(이지혜, 2015; Cheang, 2002; Gardner, 2011; Rosenbaum, Sweeney, & Windhorst, 2009). 집이 제1의 공간, 일터가 제2의 공간이라면, 제3의 공간은 자발적이고 정기적이며 즐거운 만남을 가능케 하는 공간을 의미한다(Oldenburg, 1989).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에서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그곳에서 노인들 간의 많은 대화와 웃음이 오가고, 이곳에서의 상호작용이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Cheang, 2002; Gardner, 2011).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게 본 연구에서도 노인이 패스트푸드점과 빵집에서 보낸 시간이 긴 날에는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높고, 외로움을 느낀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이웃의 집이나 일터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대인맥락이 카페와 상당히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누구와 무엇을 하는가?’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가?’ 또한 일상생활 속 정서경험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제3의 공간의 특성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제3의 공간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 위치하며(public settings), 활기찬 분위기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다(Lee, 2015). 이웃의 집이나 일터가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이러한 공간적 특성의 차이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위와 같은 공간을 이용하는 양상이 연령과 젠더에 따라 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75세 이상 후기노인은 75세 미만 전기노인에 비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이 높은 노인이 경로당을 더욱 활발히 이용하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유병선, 정규형, 2015; 장세길, 2006). 경로당에서는 TV시청, 고스톱 치기와 같은 정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연령이 높은 노인들이 신체적으로 쇠약해지더라도 부담 없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복지관/주민센터를 젊은 노인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는 것이 연령이 높은 노인들로 하여금 경로당에 결집되게 만들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젠더에 따른 공간의 분화를 살펴보면,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복지관과 주민센터, 시장과 대형상점,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남성노인은 여성노인에 비해 경로당과 오픈스페이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 때 주목할 점은 남성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로당과 오픈스페이스는 정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간인 반면, 여성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복지관·주민센터와 종교시설은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라는 점이

다. 이는 남성노인들이 왜 정서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공간을 이용하지 않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우선,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젠더차이가 공간의 선택에도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Finkel, Andel, & Pedersen, 2016; Noon & Ayalon, 2017). 그리고 복지관, 주민센터, 종교시설에서는 노래교실, 단전호흡, 라인댄스, 국선도, 요가, 탁구, 외국어 수업 등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여성노인들의 취향에 더 가까울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이론적 ·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노인이 집에서 머문 시간이 길수록 정서가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사회적 교류 및 여가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사람의 활기가 있는 공간에서 머문 시간이 길수록 정서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Aging in Place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선 거주지의 독립성과 삶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통합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환경을 개선하거나 재가서비스를 마련하려는 노력에 더해, 노인이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노인들의 사회적 교류가 노인을 위해 마련된 공간 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노인의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경로당, 노인복지관, 탐골공원과 같은 곳에 국한되어 있는 정책적 관심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공간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연령과 젠더에 따라 노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정책적 관심이 일부 공간에 국한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표본의 크기가 66명으로 작다보니 개인 간 비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만약 후속연구에서 표본의 크기가 확보된다면, 공간을 이용하는 양상에 따라 전반적인 삶의 질이나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 등이 달



라지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망원동이라는 하나의 동네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다른 동네나 도시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망원동은 연립주택과 소규모 아파트가 많은 동네인데, 만약 고층의 아파트가 밀집한 동네를 연구한다면 노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망원동은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른 동네에 비해 노인들이 걷기 좋은 동네인데, 만약 노인들이 걷기 불편한 동네를 연구한다면 노인들의 공간 이용 및 교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동네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특징과 노인의 생활상을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표집방법 상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경로당, 복지관, 종교시설 등을 방문하여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표집방법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연구원들이 망원동의 곳곳을 방문하고, 길거리에 머무르며 연구참여자를 모집함으로써 보완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노인들을 모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전화통화로 일상재구성법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조사원과의 라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정서를 긍정적인 쪽으로 응답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전화를 통한 일상재구성법 조사를 진행한다면, 조사원과 연구참여자 간의 라포 형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정서는 전화로 응답하지 않고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게 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공간들이 노인의 사회적 교류를 가능케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간의 전부라고 볼 수 없다. 도시공간과 관련하여 지적되는 바는 공간 자체가 철저히 상품화 되어 있어서,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주변화되고 희박해진다는 점이다(조명래, 2013;

Laws,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공간들은 노인들이 위와 같은 도시의 여건 속에서 절충하여 선택한 공간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공간에 대해서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도시노인의 지역사회 내 삶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돕고, 노년기 공간이용과 정서경험 간의 연계성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Aging in Place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및 사회적 통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교류를 가능케 하는 공간들을 탐색하고, 나아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간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강은나(2017). 노년기 근린환경 유형과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37, 669-686.
- 구본미(2014). 노년기 장애와 지역사회환경의 특성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4(2), 103-132.
- 권현주, 이수진, 이연숙(2008). Aging-in-Place 를 지원하는 고령친화 디지털홈 계획방향 요구에 대한 실험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4(7), 21-28.
- 김동배, 유병선(2013). 근린환경과 노인의 사회적 관계, 우울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3(1), 105-123.
- 김소진(2009). 노인들의 집단 문화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종묘공원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3), 349-375.
- 김영주(2006). Aging in Place 활성화를 위한 노인가구의 주택개조실태 및 요구조사. *생활과학논집*, 23, 13-35.
- 김왕배(1999). 일상생활세계론-시·공간과 실천의 합리화. *경제와 사회*, 43, 175-204.
- 김왕배(2000). *도시 공간 생활세계*. 서울: 한울.
- 김은경(2017). 경로당을 이용하는 도시거주 고령 독거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203-203.
- 박효숙, 정연준, 이경환(2017). 노인들의 보행경로와 외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 특성에 대한 실증분석: 서울시 녹번동을 대상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8(6), 17-35.
- 서문진희, 정여주(2011). 장기요양필요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2(4), 3-30.
- 석재은, 이기주(2017). 장기요양 인정자의 최초 재가급여 선택과 유지 및 이탈에 대한 영향요인: Aging in Place 지원을 위한 탐색. *보건사회연구*, 37(4), 43-70.

- 우국희(2017). 섬 지역 고령자의 장소경험과 의미. *비판사회정책*, (54), 260-304.
- 유병선, 정규형(2015). 도농 간 경로당 이용 결정요인 차이 연구.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2(2), 170-194.
- 유성호(2009). 경로당 발전방안 탐색: 경로당 이용경험에 따른 노인들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4), 1463-1478.
- 윤성은, 한경혜(2011). 농촌노인들의 생활세계와 농촌 커뮤니티에서의 삶의 의미. *한국노년학*, 31(3), 767-793.
- 이선재, 박소현(2018). 스마트폰 보행이동 데이터를 활용한 노인의 역세권 이용실태 분석: “WalkOn” APP 의 서울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4(3), 129-138.
- 이수진, 권현주, 이연숙, 민병아(2007). Aging in Place를 지원해주는 유니버설디자인 욕실설비 및 제품 특성 분석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3(12), 125-134.
- 이승훈(2017). AIP (Aging in Place) 에 대한 주관적 기대와 의미: 농촌 지역의 노인들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7(1), 135-163.
- 이윤경, 강은나, 김세진, 변재관(2017).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Aging in Place) 를 위한 장기요양제도 개편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모, 이신영(2006). 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2, 203-222.
- 이정화, 한경혜(2003). 농촌노인의 일과 여가활동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농촌사회*, 13(1), 209-238.
- 이지연, 한경혜(2017).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노화불안이 노인과의 시공간 공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과의 접촉 및 교류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1(2), 1-30.
- 이지혜(2015). 노인의 사회적 고립감, 제 3 의 장소로 해결. *도시정보*, 29-31.
- 장세길(2006). 경로당 노인의 일상과 사회문화적 관계: 전라북도 전주시

- 의 아파트 경로당 사례. *지역사회연구*, 14(4), 3-29.
- 정태호(2018). 노인의 구매행위 및 구매장소 특성을 고려한 노인의 근린 보행 유형화 연구: 서울시 마포구 망원1,2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명래(2013). *공간으로 사회 읽기(개념, 쟁점과 대안)*. 서울: 한울아카데미.
- 조아라. (2013). 일본의 고령자 거주문제와 주거정책: Aging in Place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8(5), 709-727.
- 조재희, 서일정(2017). 트위터 사용자의 도시 내 활동반경과 거주지역의 탐색: 라스베이거스 사례. *한국통신학회논문지*, 42(2), 505-513.
- 진미정(2018). 가족정책 관점에서의 가족친화 지역사회 개념화. *한국가족복지학*, 23(2), 337-361.
- 최광수(2016).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주민건강의 관련성에 대한 다 수준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30(3), 403-426.
- 최희진, 한경혜(2018). 매일의 사회적 교류가 한국 도시노인의 일상 정서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30, 114-140.
- 한경혜, 김주현, 강혜원(2005).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마을의 특성과 노인들의 상호작용: 강원도 지역 3 개 마을 사례연구. *농촌사회*, 15(2), 85-131.
- 한경혜, 손정연(2009). 경험표집법을 통해 살펴본 도시노인의 일상생활 경험: 공간/대인맥락과 정서경험에서의 젠더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3), 1159-1182.
- 한경혜, 윤성은(2009). 도시노인의 여가공간과 생활세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1), 103-121.
- 한경혜, 최혜경, 안정신, 김주현(2019). *노년학*. 서울: 신정.
- 한경혜, 최희진(2018). 도시노인의 사회적 교류, 신체활동과 일상적 행복감의 관련성. *한국노년학*, 38, 1083-1105.
- 한성미(2016). 탑골공원의 장소 정체성에 대한 연구 - 성역화사업 이후 현상을 중심으로 -. *한국조경학회지*, 44(3), 25-36.

- 허진아, 이선재, 박소현(2019). 동행여부와 보행속도를 고려한 노인의 근린가로환경 이용특성 해석: 망원동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5(1), 127-138.
- Barrett, P., Hale, B., & Gault, R. (2012). Social inclusion through ageing-in-place with care?. *Ageing & Society*, 32(3), 361-378.
- Bastian, B., Kuppens, P., De Roover, K., & Diener, E. (2014). Is valuing positive emotion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Emotion*, 14(4), 639.
- Bayer, A. H., & Harper, L. (2000). *Fixing to stay: A national survey of housing and home modification issues*. AARP.
- Birditt, K. S., Manalel, J. A., Sommers, H., Luong, G., & Fingerman, K. L. (2018). Better Off Alone: Daily Solitude Is Associated With Lower Negative Affect in More Conflictual Social Networks. *The Gerontologist*, gny060, <https://doi.org/10.1093/geront/gny060>
- Blanchard-Fields, F., Horhota, M., & Mienaltowski, A. (2008). Social context and cognition. In S. M. Hofer & D. F. Alwin (Eds.), *Handbook of cognitive aging: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pp. 614-628). Thousand Oaks, CA, US: Sage.
- Bouisson, J., & Swendsen, J. (2003). Routinization and emotional well-being: an experience sampling investigation in an elderly French sampl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8(5), P280-P282.
- Cabrita, M., Lousberg, R., Tabak, M., Hermens, H. J., & Vollenbroek-Hutten, M. M. (2017).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mpact of daily activities on the pleasure and physical activity of older adults. *European review of aging and*

- physical activity*, 14(1), 1.
- Cattell, V., Dines, N., Gesler, W., & Curtis, S. (2008). Mingling, observing, and lingering: Everyday public spac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well-being and social relations. *Health & Place*, 14(3), 544-561.
- Cheang, M. (2002). Older adults' frequent visits to a fast-food restaurant: Nonobligatory social interaction and the significance of play in a "third place". *Journal of Aging Studies*, 16(3), 303-321.
- Chui, H., Hoppmann, C. A., Gerstorf, D., Walker, R., & Luszcz, M. A. (2014). Social partners and momentary affect in the oldest-old: The presence of others benefits affect depending on who we are and who we are with. *Developmental psychology*, 50(3), 728.
- Cornwell, B. (2011). Age trends in daily social contact patterns. *Research on Aging*, 33(5), 598-631.
- Cornwell, E., & Cagney, K. A. (2017). Aging in activity space: results from smartphone-based GPS-tracking of urban seniors.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72(5), 864-875.
- Crystal, S., & Shea, D. (1990). Cumulative advantage, cumulative disadvantage, and inequality among elderly people. *The Gerontologist*, 30(4), 437-443.
- Everard, K. M.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reasons for activity and older adult well-being.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8(3), 325-340.
- Fingerman, K. L., Huo, M., Charles, S. T., & Umberson, D. J. (2019). Variety is the spice of late life: Social integration and daily activit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 Finkel, D., Andel, R., & Pedersen, N. L. (2016). Gender differences in longitudinal trajectories of change in physical, social, and cognitive/sedentary leisure activitie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73(8), 1491–1500.
- Franke, T., Winters, M., McKay, H., Chaudhury, H., & Sims–Gould, J. (2017). A grounded visualization approach to explore sociospatial and temporal complexities of older adults' mobility. *Social Science & Medicine*, 193, 59–69.
- Gardner, P. J. (2011). Natural neighborhood networks—Important social networks in the lives of older adults aging in place. *Journal of Aging Studies*, 25(3), 263–271.
- Genadek, K. R., Flood, S. M., & Moen, P. (2017). For Better or Worse? Couples' Time Together in Encore Adulthood.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 Glass, T. A., & Balfour, J. L. (2003). Neighborhoods, aging, and functional limitations. *Neighborhoods and Health*, 1, 303–334.
- Goodwin, P. E., Intrieri, R. C., & Papini, D. R. (2005). Older Adults' Affect While Watching Television. *Activities, Adaptation & Aging*, 29(2), 55–72.
- Graham, D. F., Graham, I., & MacLean, M. J. (1991). Going to the mall: A leisure activity of urban elderly people. *Canadian Journal on Aging/La Revue canadienne du vieillissement*, 10(4), 345–358.
- Grefe, D. (2011). Combating ageism with narrative and intergroup contact: Possibilities of intergenerational connections. *Pastoral Psychology*, 60(1), 99–105.
- Hand, C., Huot, S., Laliberte Rudman, D., & Wijekoon, S. (2017). Qualitative - geospatial methods of exploring person - place



- transactions in aging adults: a scoping review. *The Gerontologist*, 57(3), e47–e61.
- Hektner, J. M., Schmidt, J. A., & Csikszentmihalyi, M. (2007). *Experience sampling method: Measuring the quality of everyday life*. Thousand Oaks, London: SAGE.
- Hirsch, J. A., Winters, M., Clarke, P., & McKay, H. (2014). Generating GPS activity spaces that shed light upon the mobility habits of older adults: a descriptive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Geographics*, 13(1), 51.
- Inagami, S., Cohen, D. A., & Finch, B. K. (2007). Non-residential neighborhood exposures suppress neighborhood effects on self-rated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65(8), 1779–1791.
- Jacobs, J. (1984). *The mall: An attempted escape from everyday life*. Prospect Heights, IL: Waveland Press.
- Jorgensen, D., Arksey, H., Parsons, M., Senior, H., & Thomas, D. (2009). Why do older people in New Zealand enter residential care rather than choosing to remain at home, and who makes that decision?. *Ageing International*, 34(1-2), 15–32.
- Kahneman, D., Krueger, A. B., Schkade, D. A., Schwarz, N., & Stone, A. A. (2004). A survey method for characterizing daily life experience: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Science*, 306(5702), 1776–1780.
- Kaspar, R., Oswald, F., Wahl, H. W., Voss, E., & Wettstein, M. (2015). Daily mood and out-of-home mobility in older adults: does cognitive impairment matter?.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4(1), 26–47.
- Klumb, P. L. (2004). Benefits from productive and consumptive

- activities: Results from the Berlin Aging Study. *Social Indicators Research*, 67(1-2), 107-127.
- Koenig, H. G., McCullough, M., & Larson, D. B. (2001). Religion and health: A century of research reviewed. New York.
- Krantz-Kent, R., & Stewart, J. (2007). How do older Americans spend their time. *Monthly Lab. Rev.*, 130, 8.
- Larson, R. W., Richards, M. H., & Perry-Jenkins, M. (1994). Divergent worlds: The daily emotional experience of mothers and fathers in the domestic and public sphe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1034.
- Larson, R., Mannell, R., & Zuzanek, J. (1986). Daily well-being of older adults with friends and family. *Psychology and Aging*, 1(2), 117.
- Laws, G. (1997). Spatiality and Age Relations. In Jamieson, M., Harper, S., & Victor, C. (Eds.), *Critical Approaches to Ageing and Later Life* (pp.90-101). Bristol, PA: Open University Press.
- Lawton, M. P., Moss, M. S., Winter, L., & Hoffman, C. (2002). Motivation in later life: Personal projects and well-being. *Psychology and Aging*, 17(4), 539.
- Lay, J. C., Pauly, T., Graf, P., Mahmood, A., & Hoppmann, C. A. (2018). Choosing Solitude: Age Differences in Situational and Affective Correlates of Solitude-Seeking in Midlife and Older Adulthood.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gby044.
- Lee, JH. (2015) *Older Adults' Third Places and Perceived Social Connectedness* (Doctoral dissertation). Retrieved from <https://oaktrust.library.tamu.edu/>
- Lefèbvre, H. (2011). *공간의 생산* (양영란,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원서출판 1974)

- Löfqvist, C., Granbom, M., Himmelsbach, I., Iwarsson, S., Oswald, F., & Haak, M. (2013). Voices on relocation and aging in place in very old age—a complex and ambivalent matter. *The Gerontologist*, 53(6), 919–927.
- Luppa, M., Luck, T., Weyerer, S., König, H. H., Brähler, E., & Riedel-Heller, S. G. (2009). Prediction of institutionalization in the elderly. A systematic review. *Age and ageing*, 39(1), 31–38.
- MacLean, M., Brown, D., & Sijpkens, P. (1985). Leisure activities of the elderly in urban shopping centers: a case study analysis. *Aging: Innovations and Creative Responses*. London: Croom Helm.
- Mahmood, A., Chaudhury, H., Michael, Y. L., Campo, M., Hay, K., & Sarte, A. (2012). A photovoice documentation of the role of neighborhood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s in older adults' physical activity in two metropolitan areas in North America. *Social Science & Medicine*, 74(8), 1180–1192.
- Noon, R. B., & Ayalon, L. (2017). Older adults in public open spaces: Age and gender segregation. *The Gerontologist*, 58(1), 149–158.
- Oerlemans, W. G., Bakker, A. B., & Veenhoven, R. (2011). Finding the key to happy aging: A day reconstruction study of happiness.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6(6), 665–674.
- Oldenburg, R., & Brissett, D. (1982). The third place. *Qualitative Sociology*, 5(4), 265–284.
- Oswald, F., Jopp, D., Rott, C., & Wahl, H. W. (2010). Is aging in

- place a resource for or risk to life satisfaction?. *The Gerontologist*, 51(2), 238-250.
- Peace, S. (2013). Social interactions in public spaces and places: A conceptual overview. In Rowles & Bernard(Eds.) *Environmental Gerontology. Making Meaningful Places in Old Age*(pp. 25-49). Springer.
- Peace, S., Holland, C., & Kellaher, L. (2006). *Environment and identity in later life*. Open University. Milton Keynes.
- Petersen, J., Austin, D., Mattek, N., & Kaye, J. (2015). Time out-of-home and cognitive, physical, and emotional wellbeing of older adults: a longitudinal mixed effects model. *PLoS One*, 10(10), e0139643.
- Phillipson, C., & Scharf, T. (2005). Rural and urban perspectives on growing old: developing a new research agenda. *European journal of ageing*, 2(2), 67-75.
- Queen, T. L., Stawski, R. S., Ryan, L. H., & Smith, J. (2014). Loneliness in a day: Activity engagement, time alone, and experienced emotions. *Psychology and Aging*, 29(2), 297.
- Rantz, M. J., Phillips, L., Aud, M., Popejoy, L., Marek, K. D., Hicks, L. L., Zaniletti, I., & Miller, S. J. (2011). Evaluation of aging in place model with home care services and registered nurse care coordination in senior housing. *Nursing Outlook*, 59(1), 37-46.
- Relph, E. (2005).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율김). 서울: 논형.(원서출판 1976)
- Rosenbaum, M. S., Sweeney, J. C., & Windhorst, C. (2009). The Restorative Qualities of an Activity-Based, Third Place Café for Seniors: Restoration, Social Support, and Place Attachment at Mather's--More Than a Café. *Seniors*

- Housing & Care Journal*, 17(1).
- Schönfelder, S., & Axhausen, K. W. (2003). Activity spaces: measures of social exclusion?. *Transport Policy*, 10(4), 273-286.
- Schroer, M. (2010). *공간, 장소, 경계* (정인모, 배정희,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원서출판 2006).
- Sherwood, A., & Turner, J. R. (1992). *A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overview of cardiovascular reactivity research*. Boston: Springer.
- Sixsmith, A., & Sixsmith, J. (2008). Ageing in place in the United Kingdom. *Ageing International*, 32(3), 219-235.
- Soja, E. (1997).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이무용, 옮김). 서울: 시각과 언어.(원서출판 1989)
- Sugiyama, T., & Thompson, C. W. (2007). Older people's health, outdoor activity and supportiveness of neighbourhood environment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83(2-3), 168-175.
- Thomas, W., & Blanchard, J. (2009). Moving beyond place: Aging in community. *Generations*, 33(2), 12-17.
- Wanka, A. (2017). Disengagement as withdrawal from public space: Rethinking the relation between place attachment, place appropriation, and identity-building among older adults. *The Gerontologist*, 58(1), 130-139.
- Watson, D. (1988). Intraindividual and interindividual analys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ir relation to health complaints, perceived stress, and daily activit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20.
- Whitehead, B. R., & Blaxton, J. M. (2017). Daily well-being benefits of physical activity in older adults: Does time or

type matter?. *The Gerontologist*, 57(6), 1062–1071.

Wiles, J. L., Leibing, A., Guberman, N., Reeve, J., & Allen, R. E. (2012). The meaning of “aging in place” to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52(3), 357–366.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2007 Geneva, SwitzerlandAuthor.

## 부 록

### Part1. 통행일지

|   |
|---|
| 1일 : <input type="checkbox"/> 월요일 <input type="checkbox"/> 화요일 <input type="checkbox"/> 수요일 <input type="checkbox"/> 목요일 <input type="checkbox"/> 금요일 <input type="checkbox"/> 토요일 <input type="checkbox"/> 일요일<br>날짜 :      월      일 |
|---|

| 시작한 장소 | 시작시간 | 그곳에서 무엇을 했나요? | 떠난 시간은? |
|--------|------|---------------|---------|
|        | 시    |               | 시       |

| #01 그리고 나서 나는... |             |               |         |
|------------------|-------------|---------------|---------|
| 어디에 갔나요?         | 몇 시에 도착했나요? | 그곳에서 무엇을 했나요? | 떠난 시간은? |
|                  | 시           |               | 시       |

| #02 그리고 나서 나는... |             |               |         |
|------------------|-------------|---------------|---------|
| 어디에 갔나요?         | 몇 시에 도착했나요? | 그곳에서 무엇을 했나요? | 떠난 시간은? |
|                  | 시           |               | 시       |

| #03 그리고 나서 나는... |             |               |         |
|------------------|-------------|---------------|---------|
| 어디에 갔나요?         | 몇 시에 도착했나요? | 그곳에서 무엇을 했나요? | 떠난 시간은? |
|                  | 시           |               | 시       |

| #04 그리고 나서 나는... |             |               |         |
|------------------|-------------|---------------|---------|
| 어디에 갔나요?         | 몇 시에 도착했나요? | 그곳에서 무엇을 했나요? | 떠난 시간은? |
|                  | 시           |               | 시       |

| #05 그리고 나서 나는... |             |               |         |
|------------------|-------------|---------------|---------|
| 어디에 갔나요?         | 몇 시에 도착했나요? | 그곳에서 무엇을 했나요? | 떠난 시간은? |
|                  | 시           |               | 시       |

| #06 그리고 나서 나는... |             |               |         |
|------------------|-------------|---------------|---------|
| 어디에 갔나요?         | 몇 시에 도착했나요? | 그곳에서 무엇을 했나요? | 떠난 시간은? |
|                  | 시           |               | 시       |

## Part2. 통행일지 설문용 flash card

day# \_\_\_\_\_ node# \_\_\_\_\_

### ○ 시작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학과 대학원생 ○○○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연구 관련하여 여쭙보고자 전화 드리게 되었습니다. (통행일지를 보시며) 하루 동안 어디를 다니셨는지 순차적으로 시간과 함께 말씀해주세요.

### 1. 어디서

1.1. 어디에 가셨나요? (대략의 위치를 포함한 상호나 점포종류)

### 2. 무엇을:

2.1. 무엇을 하셨나요? ( )

2.2. (금액 지출 발생시 \*공과금 및 서비스 포함)

2.3. 무엇에 돈을 쓰셨나요? ( )

2.4. 총 얼마를 지출하셨나요? ( 원)

### 3. 누구:

(동행인은 이전 장소에서 도착지까지의 이동경로에서 함께 간 사람을 의미합니다.)

3.1. 동행인이 있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3.2. (동행인이 있었다면) 같이 다니신 분들은 모두 몇 분이세요?

3.3. (동행인이 있었다면) 누구입니까? ( )

3.4. (동행인이 있었다면) 동반자와 언제 만나셨나요?(중복응답가능)

① 이전 장소부터 ② 중간에 만남 ③ 그 장소에 가서 만남

3.5. 도착한 장소에서 교류한 사람이 있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3.6. (교류한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입니까?( )



#### 4. 어떻게/왜:

4.1. 그곳에 어떻게 가셨어요?

- ① (보행보조기구 없이)도보 ② (보행보조기구 사용하며)도보  
③ 자전거 ④ 버스 ⑤ 전철 ⑥ 자가용 ⑦ 기타

4.2. (자가용을 탔다면) 직접 본인이 운전해서 왔나요? ① 예 ② 아니오

4.3. (걸어가지 않으셨다면) 걸어가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시설의 유무(시설이 없어서) ② 경로가 불편함 ③ 타 지역에 단  
골시설의 존재 ④ 장거리로 인해 도보불가 ⑤ 기타

4.4. 본 장소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

#### 5. 언제:

5.1. 몇 시에 그 장소에 도착하셨어요? ( )시 / ( )분

5.2. 그 장소에 머문 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 )시간 / ( )분

6. 귀하는 그 장소에서(혹은 해당 행위를 하며) 아래와 같은 기분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             | 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은<br>편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긴장한/스트레스 받은 | 1         | 2                | 3   | 4         |
| 행복한         | 1         | 2                | 3   | 4         |
| 우울한/울적한     | 1         | 2                | 3   | 4         |
| 흥미로운/열중한    | 1         | 2                | 3   | 4         |
| 편안한/이완된     | 1         | 2                | 3   | 4         |
| 짜증나는/화가나는   | 1         | 2                | 3   | 4         |
| 피곤한         | 1         | 2                | 3   | 4         |

인터뷰/전화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외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아래 질문 2)~3-2)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4) 오늘 하루 종일 외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5) 오늘 집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하신 활동 중 가장 주요한 활동 세 가지를 말씀해주십시오.

활동1:

활동2:

활동3:

6) 오늘 하루 동안 집을 방문한 사람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6-1) 6)에 있다고 응답하신 분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방문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 )명

6-2) 6)에 있다고 응답하신 분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방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

Abstract

Use of Space and  
Emotional Experience Among  
Older Adults in Mangwon-dong  
: A Day Reconstruction Study

Hong, Youngeui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neighborhood space where older adults interact with others and to examine how older adults' use of space influences their emotional experience. Based on this, the present study sought to understand how neighborhoods influence social integration and Aging in Place of older adults.

Participants (aged 65+,  $N=66$ ) were recruited from senior centers, churches, streets, and other places in Mangwon-dong, Seoul, Korea. This study used a day reconstruction method and participants completed daily interviews for 7 days. Each day, older adults answered where they visited and whom they interact with and what

they did in that place. They also reported emotions felt that day. In addition, Global Positioning Systems (GPS) data of participants were collected for 7 days with a smartphone application.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the size of activity space averaged 1.9km and it decreased with age. Second, the average time spent at home was 17 hours and 15 minutes. More time spent at home was associated with worse emotional state. The negative effect of the time spent at home was greater for older adults who live alone. Third, the time spent in Gyungrodang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motions, while the time spent in senior center increased positive emotion. This might be due to differences in the activity held in each space. Fourth, in religious facilities, regular interactions among older adults were found. More time spent in religious facilities increased positive emotions and decreased negative emotion. Fifth, this study found older adults interacting in the open space, like parks and a vacant lot beside the market. Some older adults strolled in the market or mall because of the social vibrancy of those places. However, the time spent in open space and market/mall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motions. Sixth, some older adults had social interaction in fast-food restaurants and bakeries. More time spent in fast-food restaurants and bakeries were related to higher happiness level and lower loneliness level. Although the interactions and activities in the neighbor's house or workplace were similar to that in the fast-food restaurants and bakeries, the time spent in neighbor's house or workplac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motions. This results showed that not only 'what they did' and 'who they met', but 'where they stayed' also has a significant impact on emotions. Lastly, the use of space was different depending on age and gender. Older adults with higher age (75+)

were more likely to visit gyungrodang than older adults with lower age (75-). Females were more likely to visit the senior center, market/mall, religious facilities than males, while males were more likely to visit the gyungrodang and open space than femal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e importance of neighborhoods as a context of social integration and quality of life. Through the current study, we found that older adults interact with others in various spaces. Also, findings suggest that older adults' quality of life cannot be guaranteed by just staying put at home. Older adults' improved quality of life could be achieved when they socially integrated into their neighborhoods.

**Keywords : Aging in Place, neighborhood, day reconstruction method, urban older adults, use of space, emotional experience**

***Student Number : 2017-24860***